

김 희 명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陰陽五行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셸 뚜르니에의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菩聖所』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유 진

陰陽五行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셸 푸르니에의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菩聖所』

김 희 명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유진

인 준 서

유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미셸 푸르니에의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苦聖所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1967)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1719)를 다시쓰기한 것이다.

푸르니에는 자신의 작품들에서 인간 사고의 원형인 신화를 되살려내고자 한다. 이에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苦聖所』에서 로벵송이 도달하는 <태양의 세계>와 디포의 원작과는 전혀 다른 <방드르디의 떠남>과 <죄디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동양 철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았다.

I부에서는 陰陽五行의 개념설명과 함께, 작중요소의 성향을 바탕으로 로벵송은 火, 스페란차는 土, 방드르디는 金,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은 水 그리고 죄디는 木에 연결시켰다.

II부에서는 陰陽五行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중요소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五行相生 구조를 대입해보면 다섯 가지 작중요소가 등장하는 <줄거리 흐름>과 작중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로벵송이 겪게 되는 <내적 변화의 흐름>, 이렇게 두 가지의相生 구조를 살 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작품 전체가 相剋과 相生을 연결시켜 본 相生의 원리 즉, 五行의 원리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五行의 시각에서, 푸르니에가 되살리고자 하는 신화의 세계인 태양의 세계는 모든 대립이 초월된 太極의 세계이며, 로벵송의 태양적 변모를

위하여 방드르디가 떠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죄디는 태양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황금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서론	1
i) 별첨:타로카드 연구)	6
I. 陰陽五行	12
1. 五行의相生과相剋	13
2. 剋生의 관계	16
3. 五行의 파생	18
4. 五行의 속성과 작중 요소	19
II. 『방드르디』와 五行.....	22
1. 로뻡송-火.....	22
1) 삶의 주체성을 잃은 로뻡송-火.....	22
2) 삶의 주인인 로뻡송-火	26
2. 스페란차(섬)-土	30
1) 거부되고, 통치 받는 일개 섬-土	30
2) 인격을 갖춘 스페란차(섬)-土	32
3. 방드르디-金	39
1) 하인인 방드르디-金	39
2) 동반자인 방드르디-金	42
4. 태양의 세계	50
5. 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	56
6. 죄디-木	61
결론	70

참고문헌

ABSTRACT

서론

미셸 뚜르니에 Michel TOURNIER의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苦聖所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¹ (1967)는 1719년에 출간된 다니엘 디포 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²를 개작한 것이다. 이 작품으로 뚜르니에는 작품이 출간된 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대상을 받는다.

뚜르니에는 철학을 전공한 소설가로서 신화를 통해 소설과 철학을 결합시키

¹ Michel TOURNIER,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이하 본문에서는 『방드르디』, 인용문에서는 VLP로 약칭한다), Gallimard, 1998
‘les limbes’는 작품에서 로벵송이 도달하는 비시간적이고 죄없는 존재들로 가득찬 정점으로 표현된다. 또한 뚜르니에는 『생각의 거울 *Le Miroir des idées*』(1994)에서 les limbes를 ‘예수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죽은 자들과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어린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옥과 천당의 경계를 의미하는 les limbes는 로벵송이 태양적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기다림의 장소로서 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가톨릭 전문용어이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les limbes는 작품 안에서 성스럽고 신화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苦聖所’라고 번역하였다.

« Il n’y avait qu’un seul salut pour lui : retrouver le chemin de ces limbes intemporelles et peuplées d’innocents où il s’était élevé par étapes (...) ».

VLP, p.291

« Dans *Le Miroir des idées*, Tournier définit ainsi les limbes : ‘séjour des âmes des justes morts avant la venue de Jésus-Christ, ainsi que des enfants morts avant le baptême. Ce mot n’existe que dans les langues d’origine latin.’

La connotation religieuse du mot s’explique par le sentiment qu’a Robinson d’être mort dans l’esprit de ceux qui l’ont connu. Ce terme théologique qui désigne le **bord**, bord du paradis d’abord, bord de l’enfer ensuite, souligne que l’île, absente des cartes, comme ‘suspendue entre ciel et enfers, dans les limbes’ est un lieu d’attente où Robinson recevra une révélation.»

Areltte BOULOUMIE, *Dossier*, Gallimard, 1996, p.347

² 이하 『로빈슨』으로 약칭한다.

고자 했다³. 신화를 인간 사고의 원형⁴이라고 간주하는 그는,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아가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신화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시 알아보고, 다시 읽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인간 정신의 근본이 되고 현재의 상상력과 사고의 토대가 되는 신화를 과거의 것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되살리는 것이 작가의 사명이라고 여겼다⁵. 신화를 되살리기 위한 뚜르니에의 작업은 너무 알려진 나머지 정형화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의미를 낼 수 없는 과거의 신화를 다시 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원작인 『로빈슨』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제목>, <방드르디Vendredi의 역할>⁶,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로뱅송Robinson의 잔류>와 <방드르디의 떠남>, <죄디Jeudi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다. 『방드르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신세계로 향하던 로뱅송은 난파로 무인도에 표류하고, 우연히 방드르디를 만나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오랜 생활 중, 구조선이 도착하자 로뱅송은 섬에 남기로 결심하지만, 방드르디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떠난다. 이에 좌절한 로뱅송이 죽으려고 하는 순간 선원들의 학대

³ Michel TOURNIER, *Le vent Paraclet*, Gallimard, 1977, p.188

« Le passage de la métaphysique au roman devait m'être fourni par le mythe »

⁴ cf. *Ibid.*, p.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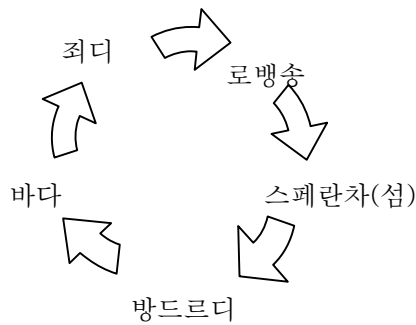
« Oui, l'âme humaine se forme de la mythologie qui est dans l'air. »

⁵ cf. *Ibid.*, p.193

« Un mythe mort, cela s'appelle une allégorie. La fonction de l'écrivain est d'empêcher les mythes de devenir des allégories. »

⁶ 뚜르니에는 인간 박물관에서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강의를 통해 야만인이란 없다는 인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디포의 『로빈슨』을 다시쓰기 시작한다. 단지 하인인 『로빈슨』의 프라이데이와는 달리 뚜르니에의 방드르디는 과거의 재구성에만 몰두하는 로빈슨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를 피해 섬으로 도망친 죄대를 만나고, 죄대와 만남을 통해 로벵송은 태양적 존재로 변모한다. 이 줄거리를 공식화하면 ‘로벵송→섬에 도착→방드르디와 만남→바다, 방드르디의 떠남→죄대 등장→태양의 로벵송’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표1과 같이 다섯 가지의 작중 요소가 서로 이어지는 원의 구조로 陰陽五行의相生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표1: 『방드르디』의 줄거리>



<표2: 五行의相生 >

뚜르니에는 철학을 전공했고 여러 신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동양에 또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황금 물방울 *La Goutte d'or*』(1985)이라는 작품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가던 이드리스는 동양의 글쓰기인 서예를 배우으로써 신화적 세계를 되찾아 간다. 뚜르니에가 서예에서 주목한 것은 이미지와 대조되는 기호의 아름다움⁷이지 동양 이론 자체는 아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뚜르니에가 陰陽五行의 원리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려

⁷ cf. Michel TOURNIER, *Le Miroir des Idées*, Mercure de France, 1994, pp.169-170.

« Il(le signe) est tourné vers l'avenir. Alors que l'image est matière, reliquat figé du passé. Et le signe a sa beauté. C'est celle qui éclate dans la calligraphie. »

는 것이 아니라, 陰陽五行의 원리를 통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푸르니에의 작품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 방드르디의 존재와 신화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작품의 흐름과 구성을 陰陽五行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면서, 특히 로벵송이 도달하고자 하는 <태양의 세계>는 무엇이며, <방드르디의 떠남>과 <죄디의 등장>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부에서는 陰陽五行의 개념 및 五行의 相生과 相剋, 剋生의 원리, 五行의 파생에 대해 설명하고, 五行의 요소와 작중 요소를 연결시킬 것이다. II부에서는 陰陽五行의 원리를 『방드르디』에 대입해서 작중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방드르디』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요소는 로벵송, 스페란차Speranza, 방드르디,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 그리고 죄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각 요소의 등장 비중에 따라 줄거리가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4장은 로벵송이 중심 인물이며, 5장부터 6장은 스페란차가, 7장부터 10장은 방드르디가, 11장은 바다가, 12장은 죄디가 중심 요소가 된다. 작품에서 로벵송-火와 스페란차-土, 방드르디-金에 대한 내용은 水와 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총 12장 중 10장을 차지한다). 이에 II.1에서는 삶의 주체성을 잃은 로벵송-火와 삶의 주인인 로벵송-火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I.2에서는 스페란차(섬)-土를 중심으로 거부되고 통치 받는 일개 섬-土와 인격을 갖춘 스페란차-土, 火生土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II.3에서는 하인인 방드르디-金과 동반자인 방드르디-金의 모습을 통해 土生金과 金火相爭에 대해 살펴보고, II.4에서는 푸르니에가 말하

고자 하는 신화의 세계 즉, 태양의 세계에 관해 검토할 것이며, II.5에서는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이 지니는 水의 속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I.6에서는 木인 죄디를 중심으로 水生木과 <죄디의 등장>이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五行의 相生은 ‘木→火→土→金→水’로 이루어지나, 순서의 처음은 주주가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빈슨』의 프라이데이와 비교해볼 때, 방드르디는 『방드르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작품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로뱅송이다. 그런 이유로 『방드르디』에서는 五行相生이 ‘火→土→金→水→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방드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相生의 흐름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줄거리 흐름>으로 작중 요소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순서인데, <로뱅송-火→스페란차-土→방드르디-金→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죄디-木>의 흐름이다. 相生작용과 相剋작용은 각 요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요소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 관계에서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전도가 일어난다. 따라서 <줄거리 흐름>은 단순히 등장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相生적인 측면에서 ‘삶의 주인인 로뱅송-火→인격을 갖춘 스페란차-土→동반자인 방드르디-金→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죄디-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로뱅송이 작중 요소(능동적인 자신-火, 인격적인 섬-土, 동반자인 방드르디-金,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水, 죄디-木)과의 만남을 통해 겪게 되는 <내적 변화의 흐름>인데, 줄거리 흐름과 구분하기 위해 <火의 시기→土의 시기→金の 시기→水の 시기→木の 시기>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인격적인 섬-土와의 관계를 통해 로뱅송은

내적인 변화를 겪는데 즉, 내적으로 ‘土의 시기’에 접어든다.

작품의 분석을 위해 陰陽五行과 연금술, 통과제의, 물질 상상력에 대한 이론을 참고하였다. 덧붙여서, 본 논문의 연구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본문에 대한 것으로, 서문의 타로점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의 이해를 위해 인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책의 내용이 완성된 후 서문이 쓰여졌다”⁸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서문은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타로에 대한 연구를 서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i) 타로카드 연구

타로는 22장의 대大비밀 카드와 56장의 소小비밀 카드를 합쳐 78장의 카드로 구성된 점술용 카드로, 이미지에선 중세 기독교 및 신화와 점성술의 상징이 섞여있다⁹. 타로카드 그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편폭이 매우 넓다. 타로의 의미는 특정한 타로의 신이 있어서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읽는 사람의 직관이나 통찰에 달린 것으로, 이 때문에 용은 타로카드가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나타내준다고 여기고는 심리상담에 많이 응용했다고 한다.¹⁰ 말이나 글로는

⁸ Arlette BOULOUMIE, *Dossier*, Gallimard, 1996, p.347

« Cette ‘préface’, écrite après que le livre fut achevé, souligne la structure en miroir du livre. »

⁹ cf. Jean Chevalier et Alain Gheerbrant, *Dictionnaire des Symboles.(vo.4)*, Seghers, 1973, p.263.

¹⁰ cf. 정재훈, 정성윤, 『정통타로카드배우기』, 넥서스, 2004, p.24.

분명 표현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가 타로가 가진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타로카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집트 기원설로 뚜르니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¹¹. 타로 기원설에 본격적인 관심의 불을 지핀 것은 18세기 프랑스 학자인 앙투완느 꾸르 드 제블랭 Antoine court de GEBLIN이 『고대세계와 현대세계의 비교분석 *Le monde primitif analysé et comparé avec le monde moderne*』(1782)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¹². 그는 타로가 “이집트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집트 신들 가운데 문자의 신인 토트에 의해 쓰여진,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를 찾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론화하려고 애썼다”¹³. 그에 의하면 “Tarot라는 낱말은 이집트 단어 tar와 ro가 합쳐진 것으로, tar는 la voie, ro는 royal이라는 뜻으로써, tarot는 la voie royale 즉, 왕도王道를 나타내는 가장 영예로운 길을 의미한다”¹⁴.

『방드르디』에서 로뱅송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은 11장의 대비밀 카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¹¹ VLP, p.13

«Du moins le tarot égyptien le dit-il.»

¹² cf. 정재윤, 정성윤, *op. cit.*, p.17

¹³ *Ibid.*, *op. cit.*, p.13.

¹⁴ 문진희, 「Tournier의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에 나타난 Tarot de Marseille에 의한 이미지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1991, p.4,

예언순서	작품속이름	타로번호	타로이름
1	Le Bateleur	Arcane ¹⁵ 1	Le Bateleur
2	Mars	A7	Le Chariot
3	L’Hermite	A9	L’Hermite
4	Vénus	A17	Les Etoiles
5	Le Sagittaire	A6	L’Amoureux
6	Le Chaos	A21	Le Monde
7	Saturne	A12	Le Pendu
8	Les Gémeaux	A15	Le Diable
9	Le Lion	A19	Le Soleil
10	Le Capricorne	A13	La Mort
11	Jupiter	A20	Le Jugement

<표3 : 『방드르디』 서문에 나타난 타로점의 예언 순서>

타로와 로뱅송의 운명을 각 장에 따라 연관시킨 아를레뜨 블루미에 Arelette BOULOUMIE의 구분¹⁶은 장의 순서대로 따를 경우 4번째 예언인 Vénus와 5

¹⁵ 카드 낱장을 가리키는 아카나 Arcana란 표현은 비의秘義를 뜻하는 라틴어 아르카눔 Arcanum에서 유래했다.

¹⁶ 문진희, *op. cit.*, p.6, 재인용, Arlette Bouloumie, *Vendredi ou les limbes de Pacifique de Michel Tournier.*, Gallimard, 1990, p.36. :

번째 예언인 Le Sagittaire, 6번째 예언인 Le Chaos의 순서가 분명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작품에서 뚜르니에는 11장의 카드를 2개의 타로 이름(Le Bateleur, L’Hermite)과 4개의 별 이름(Mars, Vénus, Saturne, Jupiter), 4개의 별자리 이름(Le Sagittaire, Les Gémeaux, Le Lion, Le Capricorne), 그리고 1개의 기타의 이름(Le Chaos)으로 부르고 있다.

김화영은 타로 카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갈궁(카프리콘)은 숫염소 양도아르와 일치한다”¹⁷고 했다. 하지만 그 카드는 이름이 le Capricorne 즉, 마갈궁¹⁸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양도아르Andoar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드르디가 섬을 떠난 후 좌절한 로뱅송의 상태를 예언하는 것이다.

아! 마갈궁이 나왔군요! 이걸 영혼이 나가는 문,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예요. 손과 발과 머리가 잔뜩 널려 있는 초원의 풀을 싹둑싹둑 베고 있는 이 해골은 이 칼날에 결부된 불길한 의미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태양의 도시 높은 곳에서 떨어진 당신은 엄청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카드가 당신에게 떨어질지 어서 알고 싶으면서도 겁이 나는군요. 만약 그것이 약한 그림이라면 당신은 끝장나는 겁니다...

Ah! Le Capricorne! C’est la porte de sortie des âmes, autant dire

Le Bateleur Mars	L’Hermite	Vénus Le Sagittaire	Le Chaos	Saturne Les Gémeaux Le Lion	Le Capricorne Jupiter
CH.1,2,3,4	CH.5-6	CH.7-9	CH.8	CH.9-10	CH.11-12

¹⁷ cf. 김화영,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의 신화적 해석」, 민음사, 2004, p.344

¹⁸ 마갈궁은 염소자리라고도 한다.

la mort. Ce squelette qui fauche une prairie jonchée de mains, de pieds et de têtes dit assez le sens funeste qui s'attache à cette lame. Précipité du haut de la Cité solaire, vous êtes en grand danger de mort. J'ai hâte et j'ai peur de connaître la carte qui va vous échoir maintenant. Si c'est un signe faible, votre histoire est finie...¹⁹

앞에서 언급했듯이 타로는 점성술의 상징뿐만 아니라,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 물질인 4원소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상징적 체계에 따라 장 뵘에르 베이아르Jean-Pierre BAYARD²⁰는 원소-수호성-별자리-타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원소	수호성	별자리	타로
Eau	Lune	Cancer, Poissons	Les Etoiles, Le Pendu
Terre	Mercurie et Saturne	Taureau, Capricorne	Le Bateleur, L'Hermite, La Mort
Feu	Mars et Soleil	Sagittaire, Bélier	Le Chariot, Le Jugement L'Amoureux, Le Monde
Air	Vénus et Jupiter	Gémeaux	Le Diable, Le Soleil

<표4>

¹⁹ VLP, p.13

²⁰ 문진희, *op. cit.*, p.5, 재인용, Jean-Pierre BAYARD, *La pratique du Tarot*, Paris :Editions Dangles, 1987, pp.123-127.

하지만 뚜르니에는 <표4>와 같은 타로의 일반적인 분류와는 다르게 Les Etoiles을 Vénus로, Le Pendu를 Saturne로, Le Jugement을 Jupiter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문진희는 뚜르니에가 le Pendu는 흙으로, le Jugement은 공기로, Vénus는 Les Etoiles과 연결하여 물의 요소로 간주한 것이라고 보고, 로뱅송이 개인적 입문과정에서 도달한 변신의 최고 단계인 태양의 이미지를 4원소에서 따로 분리하면서 le Jugement를 태양으로, le Bateleur를 카드가 가진 창조의 상징을 물의 근원적 이미지와 상통한다고 하여 물로 분류했다²¹. 하지만 le Bateleur는 동굴로 들어가는 로뱅송에 해당하는 카드로 물의 이미지보다는 대지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²¹ cf. *Ibid.*, pp. 5-6

I. 陰陽五行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이 이를 움직이게 하는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철학적 과제이다. 陰陽五行은 이러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동양학의 기초이론이다.

우주의 본체인 太極으로부터 陰과 陽이라는 상반되는 기운이 나타나고, 陰陽이 또다시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성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五行이라고 한다. 즉 “太極=陰+陽”, “陰陽=木+火+土+金+水”²²로 나타낼 수 있다. 木·火·土·金·水 다섯 가지 성질은 쉬지않고 서로 모순과 대립, 조화를 이루면서 만물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陰陽五行의 원리에 대해 한동석은 『우주 변화의 원리』(1966)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양오행의 운동법칙이란 우주의 변화법칙(變化法則)이며, 만물의 생사법칙(生死法則)이며, 정신의 생성법칙(生成法則)이므로 우주의 변화가 이 법칙 밖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법칙의 원리를 ‘우주변화(宇宙變化)의 원리’라고 명명한 것이다.²³

五行은 “자연 그대로의 성질”²⁴ 인데, 木·火·土·金·水로 표현한다고 해서 나무·불·흙·쇠·물이라는 다섯 가지 물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五行은

²²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2005, p.57

²³ *Ibid.*, p.11

²⁴ 한규성, 『역학원리강설』, 예문지, 1998, p.105

지구를 토성이라고 하고 동쪽의 목성, 남쪽의 화성, 서쪽의 금성, 북쪽의 수성에서 오는 기운을 지칭하는 것으로 ‘형체가 없는 무형의 존재’를 말한다.

²⁵ 물질 같은 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형인 것으로, 무형인 五行의 기운을 쉽게 이해하고자 木·火·土·金·水라는 유형의 예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五行의 각 요소는 형이상, 형이하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1. 五行의 相生과 相剋

相生과 相剋은 서로 生하고 서로 剋한다는 말이지만, 일방적인 生과 일방적인 剋이라는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²⁶.



<표 5: 五行의 相生>

²⁵ cf. 김배성, 『명리학 정론』, 창해, 2003, p.27

²⁶ cf. 낭월 박주현, 『알기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2004, p.218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 서로 生하고 서로 剋하는 것이 되기는 한다. 그리고 더욱 깊어지면 이 때는 生이니 剋이니 하는 구분조차 모호해진다. 서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剋이 生이 되기도 하고, 生이 剋이 되기도 한다.»

相生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 4 계절이 순환하는 과정과 같다. 말 그대로 순조로운 관계를 뜻한다. 木→火→土→金→水의 순행법칙으로,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다. 나무는 불을 타게 해주며(木生火), 불이 타고나면 재가 생기고(火生土), 흙 속에는 광물인 금이 있으며(土生金), 바위에서 물이 나고(金生水), 물은 나무에게 수분을 주어 자라게 한다(水生木).



<표 6: 五行의 相剋>

相剋은 水→火→金→木→土의 원리로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 土剋水이다. 물은 불을 꺼버리고(水剋火), 불은 금을 녹이며(火剋金), 금은 나무를 자르고(金剋木), 나무는 뿌리로 땅을 뚫으며(木剋土), 흙은 물길을 막는다(土剋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불은 자신이 지나치면 진정시켜줄 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타오를 수 있고(水剋火), 금은 불에 녹아서 연장이 되며(火剋金), 칼로 나무를 다듬어서 조각을 만들고 나무에 못을 박아 의자를 만들며(金剋木), 나무는 뿌리를 뺏어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木剋土), 물은 흙이 밑에서 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흘러간다(土剋水)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生은 ‘살린다,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剋은 ‘맞지 않는다, 해롭다, 제압한다, 이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木火土金水가 형이상, 형이하학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듯이, 生과 剋의 의미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相生이라고 해서 이로운 것이고 相剋이라고 해서 해로운 것은 아니다. “生과 剋은 모두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자연의 흐름”²⁷이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50 대 50’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⁸.

相生작용이나 相剋작용은 관계된 요소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 처음에 水剋火를 水가 火를 꺾버린다고 해석했는데, 만약 相剋이라고 해서 정말 水가 火를 만나서 꺾버렸다면 이는 지나친 相剋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相剋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相剋의 파생 작용이(I.3 참고) 일어난다. 殺이라는 것은 剋의 단편적인 부분이지 剋의 목적이 아니다. 바람직한 相“剋은 결국 生으로 통한다”²⁹.

따라서 논자는 水가 火를 끈다는 속성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火가 그를 믿고 마음껏 자기 속성을 개화시키게끔 만들고, 火가 지나칠 때는 적절히 조절해주며, 나아가 그렇게 해서 야물어진 火가 土를 生하게 되는 水와 火의 관계를 조화로운 相剋 즉, 剋生³⁰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²⁷ 낭월 박주현, *op. cit.*, p.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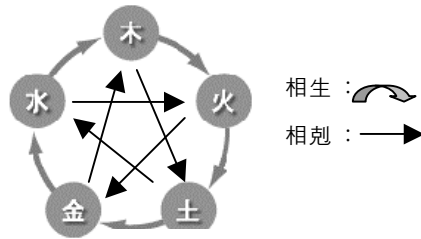
²⁸ *cf. Ibid.*, p.266

²⁹ *Ibid.*, p.265

³⁰ 剋生이라는 말은 본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다. ‘生하는 剋, 剋함으로 生한다’는 것은 相生이 相剋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相剋이 相生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剋生이란 相剋과 相生을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으로, 결국 五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2. 相生의 관계

相生과 相剋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자. 五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相生과 相剋의 관계를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표 7 참조)



<표 7 : 相生+相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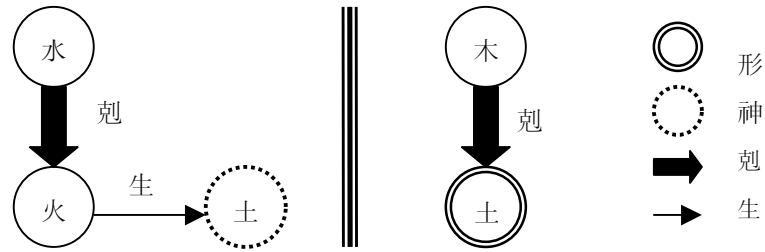
한동석은 “相剋작용은 相生작용의 반대작용을 함으로써 生을 건설하게 한다”³¹고 했다. 이 말은 剋이 生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剋작용에 의해 어느 요소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 다른 요소를 生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生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필요剋”³²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相生>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相生의 작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주의 만물은 神과 形으로 이루어져 있다. 神은 陽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생명·활력소·無形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形은 陰의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 형태·존재·물질·有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주가 五行氣중 土를 生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火가

³¹ 한동석, *op. cit.*,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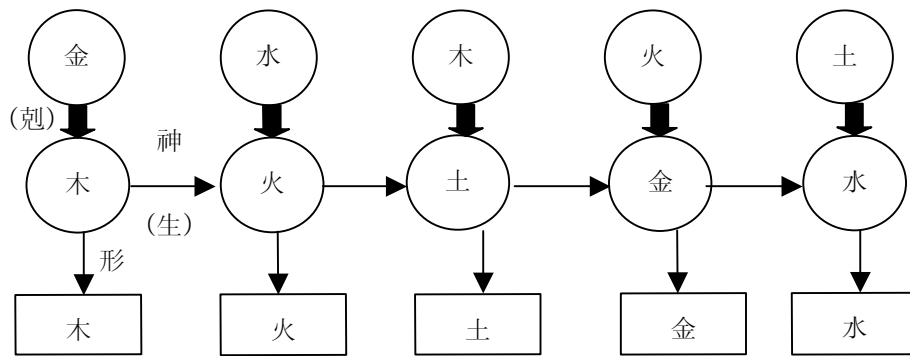
³² *Ibid.*, p.111

水의 氣를 받아서 土의 神을 生하고, 土가 木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을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표 8 참조)



<표8>

木은 金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과 火의 神을 만들고, 火는 水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과 土의 神을 만들고, 土는 木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과 金의 神을 만들고, 金은 火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과 水의 神을 만들고, 水는 火의 氣를 받아 자신의 形과 木의 神을 만든다. 이처럼 氣는 生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五行相氣는 氣함으로 해서 상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氣를 통해 生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³. 氣生의 작용은 <표 7>을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평면적으로 도식화 하면 <표 9>와 같다.



<표9 : 氣生>

³³ cf. *Ibid.*, p.117

3. 五行의 파생

相生과 相剋은 五行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기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다. 이렇듯 五行의 원리에도 기본에서 파생된 변화가 있다. 生한다고 해도 지나친 경우³⁴와 미치지 못한 경우³⁵가 있는데, 예를 들어 火는 土를 生하지만(火生土), 火가 지나치게 강하면 土를 갈라지게 만들고(土賴火生 火多土焦), 반대로 土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火가 꺼져버리게 된다(火能生土 土多火晦). 剋의 경우, 약하다고 등한시 했다가는 도리어 지는 경우³⁶를 말한다. 水는 火를 이기지만(水剋火), 火가 매우 강할 경우 水는 증발해버리고 만다.

³⁴ 낭월 박주현, *op. cit.*, p.336

«金은 土의 生을 바라지만, 土가 많으면 金이 묻히고(金賴土生 土多金埋), 土는 火의 生에 의지하나, 火가 많으면 土가 갈라지고(土賴火生 火多土焦), 火는 木의 生을 원하지만, 木이 많으면 火가 꺼지고(火賴木生 木多火熾), 木은 水의 生을 기다리나, 水가 많으면 木이 둥둥 뜨며(木賴水生 水多木漂), 水는 金의 生을 원하지만, 金이 많으면 水가 탁해진다(水賴金生 金多水濁).»

³⁵ *Ibid.*, p.349

«金은 능히 水를 生하지만, 水가 많으면 金이 잠기고(金能生水 水多金沈), 水는 능히 木을 生하지만, 木이 많으면 水가 위축되고(水能生木 木多水縮), 木은 능히 火를 生하지만, 火가 많으면 木이 불타고(木能生火 火多木焚), 火는 능히 土를 生하지만, 土가 많으면 火가 어두워지고(火能生土 土多火晦), 土는 능히 金을 生하지만, 金이 많으면 土가 약해진다(土能生金 金多土弱).»

³⁶ *Ibid.*, p.361

«金이 능히 木을 剋하지만, 木이 단단하면 金은 부서지고(金能剋木 木堅金缺), 木이 능히 土를 剋하지만, 土가 많으면 木이 꺾이고(木能剋土 土重木折), 土가 능히 水를 剋하지만, 水가 많으면 土는 떠내려가고(土能剋水 水多土流), 水가 능히 火를 剋하지만, 火가 강하면 水는 증발되고(水能剋火 火炎水灼), 火가 능히 金을 剋하지만, 金이 많으면 火가 꺼진다(火能剋金 金多化熄).»

4. 五行의 속성과 작중 요소³⁷

火의 성품은 예禮로 예의바르고 명랑하다. 속성은 위로 치솟아 타오르는 것으로, 만물을 정화시키는 기운이다. 열정, 분노, 폭발력, 태양, 달, 별, 문명, 밝음 등이 속하며, 계절은 여름이고, 방위는 남방, 색은 붉은 색, 인생에서는 청년기이며, 화성의 기운이다. 타로 점에서 화성이라 묘사되며, 거침없이 문명-火화 작업을 해나가고, 태양적 존재로 변모해가는 <로뱅송>은 <火>에 해당한다.(II.1 참고)

土의 성품은 신信으로 신용이 있고 참되다. 모든 만물을 번식, 번성시키는 근원으로, 모든 것을 중용으로 감싸며 보호하는 기운이다. 木火金水의 대립을 중화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믿음, 조화, 중심, 안정, 모성애, 산, 평야 등이 속한다. 방위는 중앙이며, 색은 황색, 인생에서는 중년기이고, 지구의 기운이다. <스페란차>가 <土>에 해당한다.(II.2 참고)

金의 성품은 의義로 의리와 결단성이 있다. 사물의 형태를 바꾸고 변형시키는 기운이다. 강인함, 바위, 보석, 인내, 살기, 심판, 쇠 등이 속한다. 계절은 가을이고, 방위는 서방, 색은 흰색, 인생에서는 장년기이며, 금성의 기운이다. 방드르디는 타로점에서 비너스로 묘사되며, 금성의 날인 금요일에서 비롯된 이름이 가지고 있다. 여름-火의 무성한 잎사귀를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가을-金처럼, 로뱅송이 문명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에 제동을 걸고, 로뱅송과 相爭관계를 이루며, 로뱅송을 태양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방드르디>는 <金>이라고 볼 수 있다.(II.3 참고)

³⁷ *Ibid, op. cit.*, pp.159-211

水의 성품은 지궤로, 슬기롭고 계획성이 탁월하다. 만물을 적셔주고,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고, 굽이치며, 변화·변동하는 속성을 지녔다. 물, 지혜, 유동성, 음모, 술수, 변화, 총명, 수학, 응결 등이 속한다. 계절은 겨울이고, 방위는 북방이며, 색은 검은색, 인생에서는 노년기이고, 수성의 기운이다.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 자체가 <水>에 해당한다.(II.5 참고)

木의 성품은 인仁이다. 시작, 희망, 성장, 의지, 추진력, 뻗어나가는 기운, 등이 속한다. 계절은 봄이며, 방위는 동방, 색은 청색, 인생에서는 유년기이고, 목성의 기운이다. 타로점에서 목성으로 예언되며, 목성의 요일인 목요일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방드르디가 떠난 후 죽음을 결심한 로벵송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다주는 <죄디>는 <木>에 해당한다.(II.6 참조)

<표10>과 같이 五行의 각 요소는 다시 한번 五行氣로 분류할 수 있다. 陰陽을 각각 陰의 陰과 陰의 陽, 陽의 陰과 陽의 陽으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五行氣 안에도 다른 五行氣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木인 나무를 살펴보더라도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며 자라는 성질은 木의 木氣에 해당하고, 꽃은 木의 火氣에, 열매는 木의 土氣에, 결실을 맺는 것과 낙엽이 지는 것은 木의 金氣에, 씨앗은 木의 水氣에 속한다. 『방드르디』의 분석은 1차분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로벵송-火와 방드르디-金, 죄디-木의 경우 2차분류의 속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로벵송-火의 2차분류는 <내적 변화의 흐름>에 해당한다. 방드르디-金에게서는 로벵송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기적 방드르디>와 <방드르디의 떠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는 金

의 木氣³⁸에 해당하고 후자는 金의 水氣³⁹와 관련이 있다. 죄디-木의 경우 로 뱁송을 태양적 존재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木의 金氣⁴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五行		속성	『방드르디』
1차분류	2차분류		
火	<u>火의 火, 火의 土</u> <u>火의 金, 火의 水</u> <u>火의 木</u>	열정, 분노, 폭발력, 태양, 달, 별, 문명, 밝음, 기쁨, 불, 여름, 남쪽, 붉은색, 청년기, 화성	로뱁송
土	土의 火, 土의 土 土의 金, 土의 水 土의 木	중화, 조화, 모성애, 땅, 중심, 산, 평야, 안정, 중년기, 중앙, 노란색, 지구	스페란차
金	金의 火, 金의 土 金의 金, <u>金의 水</u> <u>金의 木</u>	변형, 강인함, 보석, 바위, 쇠, 인내, 살기, 심판, 가을, 서쪽, 장년기, 흰색, 금성	방드르디
水	水의 火, 水의 土 水의 金, 水의 水 水의 木	슬기, 응결, 변화, 유동성, 음모, 술수, 총명, 지혜, 물, 수학, 겨울, 북쪽, 검은색, 노년기, 수성	바다 방드르디의 떠남
木	木의 火, 木의 土 <u>木의 金</u> , 木의 水 木의 木	시작, 성장, 의지, 추진력, 희망, 발육, 뺏어나감, 식물, 봄, 동쪽, 파란색, 유년기, 목성	죄디

<표 10 : 『방드르디』의 작중 요소와 五行적 속성>

³⁸ 본고 pp.54-56 참고

³⁹ 본고 pp.55-56, 60 참고

⁴⁰ 본고 pp.67-79 참고

II. 『방드르디』와 五行

1. 로뱅송-火

1) 삶의 주체성을 잃은 로뱅송-火

일확천금을 꿈꾸며 신세계로 향하던 로뱅송은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어 외딴 섬에 도착한다. 그는 가혹한 운명의 피해자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신이 표류한 섬을 ‘탄식의 섬 l’île de la Désolation’⁴¹이라 부른다. 로뱅송은 무언가 한다는 것을 구조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기고는 정착을 위한 작업 자체를 혐오한다. 사람에게서 볼 때 火는 열정으로 본다. 청춘의 피가 끓고, 열정이 타오른다는 표현은 이러한 火氣를 잘 말해준다. 火를 생하는 것은 木이다(木生火). 사람이 삶에 열정-火가 있으려면 희망-木이 있거나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강한 의지-木이 필요하다. 지금의 로뱅송에게 바다는 닫힌 길이요 섬은 열린 길이지만, 로뱅송은 외부로부터의 구원만을 기다리며 “섬 안의 땅 쪽으로는 고집스럽게 등을 돌린 채”⁴² 바다만 바라본다. 火를 생활 희망-木은 기약이 없고, 정착에 대한 의지-木은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물을 응시한다는 것은 곧 흘러간다는 것이며, 분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다”⁴³. 수동적으로 수평선만을 바라보던 어느 날,

⁴¹ VLP, p.20

⁴² *Ibid.*, p.24

« Tournant le dos obstinément à la terre, (...) »

⁴³ Gaston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José corti, 1981, p.66.

« Contempler l'eau, c'est s'écouler, c'est se dissoudre, c'est mourir. »

로병송은 바다의 환각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낀다. 광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로병송은 ‘탈출호 l’Évasion’⁴⁴를 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사람이 마음이 곤고해서 삶에 대한 열의-火를 잃었을 때 희망-木과 의지-木도 도움이 되지만(木生火),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水⁴⁵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다(水剋生火). 말이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듯, 生뿐만 아니라 剋 또한 제 힘을 내도록 도와준다. 로병송은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 배를 제작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섬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그는 코를 꿰어 끌려가는 소와 같은 수동적인 모습이다. 사람이 제 빛을 발하려면 동기가 자발적이 되었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되었건간에 능동적이어야 하는데 로병송은 그렇지가 않다. 외딴 섬에 고립된 로병송은 ‘노아의 방주 l’arche par Noé’⁴⁶처럼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어줄 탈출호 제작에 강박적으로 몰입한다.

그는 피로와 초조를 넘어선 일종의 몽유병 환자와도 같은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어서 지칠줄 모르고 다시 시작하곤 했다.

(...) mais il recommençait inlassablement, ne vivant plus que dans une sorte de torpeur de somnambule, au-delà de la fatigue et de l’impatience.⁴⁷

⁴⁴ VLP, p.29

⁴⁵ cf. 낭월 박주현, *op. cit.*, p.112

五行의 水에는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지만, 水는 陰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한 것으로 陰이라고 볼 수 있다. 陰의 기운은 어둠, 침체, 슬픔, 종말 등을 속성으로 한다.

⁴⁶ VLP, p.31

⁴⁷ *Ibid.*, p.33.

결국 배를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탈출호 계획은 진수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원인은 타인의 부재로 인해 주의력을 전환하는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탈출에 대한 좌절과 고립으로 야기된 정신적인 변형으로 자신이 멸망해 가는 것을 느낀 로병송은 진창으로 들어가버린다. 진창 속에서 배를 깔고 기어 다니며, 땅바닥에 코를 처박고 닥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먹고,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텅구는 등 로병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진다.

진창은 水가 가득한 土이다. 土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火를 필요로 하지만 (火生土) 그렇다고 火만 있다면 土는 메말라 버린다(土賴火生 火多土焦). 土가 火氣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적당히 필요하다. “土는 반드시 水가 있어야만 火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水를 뽼한다”⁴⁸ 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창은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머금었다기 보다는 물에 되려 휩쓸려가기(土能剋水 水多土流) 직전의 土로서 水에 가까운 土이다. 水는 “陰 중의 陰”⁴⁹으로 진창은 陽의 기운보다는 陰의 기운으로 가득 차있다. 陰은 부정적인 성향⁵⁰을 지니고 있다. 로병송은 진창 안에서 외부세계를 기피하며 자기

⁴⁸ 낭월 박주현, *op. cit.*, p.296

⁴⁹ cf. 낭월 박주현, *op. cit.*, p.146

	陰陽의 비율	오행	명칭
陽體	陰의 기운에서 陽의 기운으로	木	陽中之陰
陽體	陽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했을 때	火	陽中之陽
中間	陽과 陰의 기운이 균형을 이룰 때	土	陰陽中和
陰體	陽의 기운에서 陰의 기운으로	金	陰中之陽
陰體	陰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했을 때	水	陰中之陰

⁵⁰ 주석 33참조

내부로 침잠해간다. 진창은 마치 검은 시럽처럼 로뱅송을 삼켜버리고 있는 무거운 물이다. 무거운 물은 죽음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바슐라르는 “죽은 물은 잠자는 물이기 때문에, 부동의 물은 죽은 자들을 환기시킨다”⁵¹고 했다. 광기와 정신적 혼란에 사로잡혀 있던 로뱅송은 지난 시대에 속한 범선과 죽은 누이동생의 환영을 본다. 또다시 자신을 죽음으로 유혹하는 바다를 보며 로뱅송은 스스로 삶의 힘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다. 벌써부터 태양의 첫 번째 빛살들이 못처럼 꽂혀 있는 저 쇠붙이 같은 별판은 유혹이요 함정이요 아편이었다. 까딱만 하면 그 바다는 그를 더럽히고 나서 광기의 심연 속에 밀어 던지는 것이었다. 죽지 않으려면 그것에서 헤어날 수 있는 힘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Il se leva et regarda la mer. Cette plaine métallique, clouée déjà par les premières flèches du soleil, avait été sa tentation, son piège, son opium. Peu s'en était fallu qu'après l'avoir avili elle ne le livrât aux ténèbres de sa démente. Il fallait sous peine de mort trouver la force de s'en arracher.⁵²

로뱅송은 죽음 직전에서야 비로서 진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음극즉양생(陰極卽陽生) 양극즉음생(陽極卽陰生)”⁵³. 陰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陽의 기운이 생기고 陽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陰의 기운이 생긴다는 뜻이다. 과

⁵¹ Gaston BACHELARD, *op. cit.*, p.90

«les eaux immobiles évoquent les morts parce que les eaux mortes sont des eaux dormantes.»

⁵² VLP, p.48.

⁵³ 낭월 박주현, *op. cit.*, p.145

정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로벵송은 능동적인 陽의 힘을 되찾는다. 섬을 거부 하던 로벵송은 이제 “바다 쪽에는 등을 돌리고”⁵⁴ 섬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다.

섬은 그의 등 뒤에 제한된 약속 들과 준엄한 교훈들로 가득 찬 채 광대하고 순수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손안에 거머쥔 것이다. 그는 일할 것이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저 거부할 길 없는 자신의 아내인 고독과 한 몸이 될 것이다.

L'île était derrière lui, immense et vierge, pleine de promesses limitées et de leçons austères. Il reprendrait en main son destin. Il travaillerait. Il consommerait sans plus rêver ses noces avec son épouse implacable, la solitude. ⁵⁵

2) 삶의 주인인 로벵송-火

자신의 운명을 손 안에 거머쥐기로 결심한 로벵송은 운명에 끌려다니던 과거의 수동적인 자신이 부여한 ‘탄식의 섬’이라는 적대적인 이름대신 ‘스페란차 Speranza’⁵⁶라는 밝은 이름으로 섬을 부른다. 이제 항해일지를 쓰고, 섬의 지도를 만들고, 개간하며, 동물 우리와 양어장을 만들고, 양봉을 하는 등 섬에서의 진정한 생활이 시작된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돌발사고에 그는 의지력을 상실하고 다시 진창으로 들어가버린다. 그러나 이번에 진창에서 나온 로벵송은 무질서에 불과한 자연의 질서에 대항하여 승리할 각오로 무

⁵⁴ VLP, p.49.

« Tournant le dos au grand large, il s'enfonça dans les éboulis semés de chardons d'argent qui menaient vers le centre de l'île. »

⁵⁵ *Ibid.*, p.49

⁵⁶ *Ibid.*, p.53

장한다.

진창은 나의 패배이며 나의 악덕이다. 나의 승리는 절대적인 무질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자연적 질서에 항거하여 내가 스페란차에게 강요해야 마땅한 도덕적 질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아님을 이제 나는 안다. 생명을 부지하여 살아 남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인내력을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건설하고 조직하고 정돈해야 한다. 일체의 중지는 일보 후퇴이며 진창을 향한 한 걸음이다.

La souille est ma défaite, mon vice. Ma victoire, c'est l'ordre moral que je dois imposer à Speranza contre son ordre naturel qui n'est que l'autre nom du désordre absolu. Je sais maintenant qu'il ne peut être seulement question ici de survivre. Survivre, c'est mourir. Il faut patiemment et sans relâche construire, organiser, ordonner. Chaque arrêt est un pas en arrière, un pas vers la souille.⁵⁷

로벵송은 헌장과 형법을 제정하고, 단순한 피난처로서가 아니라 문명화된 공간으로서의 집을 만들며, 문명의 신전과도 같은 ‘도량형기 표준국 Conservatoire des Poids et Mesurés’⁵⁸을 세운다. 나아가 시간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로벵송은 물시계를 만드는데⁵⁹, 물시계는 섬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규칙화하고 지배하여 뼈 속까지 알아 볼 수 있는 구조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로벵송의 야심을 보여준다.

⁵⁷ *Ibid.*, p.58.

⁵⁸ *Ibid.*, p.81

⁵⁹ cf. *Ibid.*, p.70.

« Ce qui m'est apparu tout à coup avec une évidence impérieuse, c'est la nécessité de lutter contre le temps, c'est-à-dire d'emprisonner le temps. »

이제부터는 내가 깨어있건, 잠을 자건, 글을 쓰건, 요리를 하건 나의 시간은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거부할 길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통제가능한 방식으로 똑딱거리는 소리에 의하여 논리화된다. 악의 힘에 대한 나의 승리를 정의해 주는 이 형용사들에 나는 얼마나 굶주려 왔던가! 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측정, 증명, 확인되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기를 요구한다.

Désormais, que je veille ou que je dorme, que j'écrive ou que je fasse la cuisine, mon temps est sous-tendu par un tic-tac machinal, objectif, irréfutable, exact, contrôlable. Comme j'ai faim de ces épithètes qui définissent autant de victoires sur les forces du mal! Je veux, j'exige que tout autour de moi soit dorénavant mesuré, prouvé, certifié, mathématique, rationnel.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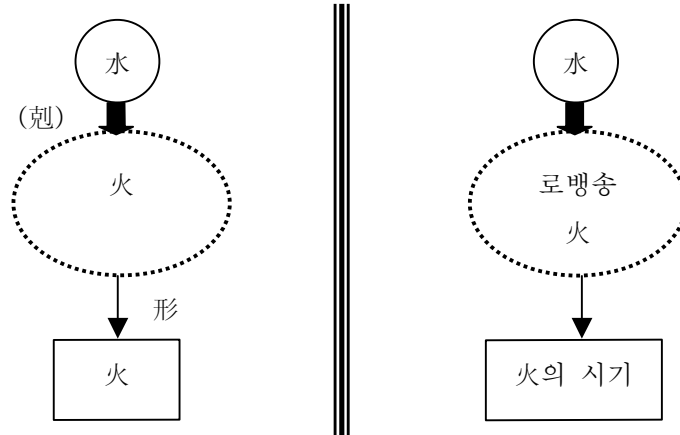
로뱅송이 주체성을 찾으면서 ‘새로운 시대 une ère nouvelle’⁶¹가 시작된다. 섬을 거부하던 로뱅송이 섬에 정착해가는 모습은 거침이 없다. 마치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다며 기세 좋게 타오르는 불을 보는듯하다. “火의 기운이라는 것은 분산을 위주로 하는 기운이다”⁶². 火氣는 木氣처럼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폭발하듯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간다. 그와 같이 로뱅송-火의 불꽃은 섬 구석구석을 문명-火세계로 구축해간다. 로뱅송이 주체성을 찾으며 자신의 속성-火를 발휘하는 것은 내적으로 火의 기운이 충만해 있음을 말한다. 火가 水의 沍을 받아 火의 形을 조성하듯이(水沍生土), 로뱅송火는 죽음의 공포-水로 인한 경각심으로 주체성을 찾으며 <火의 시기>로 진입

⁶⁰ *Ibid.*, p.77-78

⁶¹ *Ibid.*, p.52

⁶² 한동석, *op. cit.*, p.65.

한다(표11 참조)⁶³.



<표11>

火는 인생에서 청년기에 해당한다. 청춘의 피가 끓는다는 말처럼 로병송은 거침없이 문명화에 대한 열정을 뿜어댄다. 그는 모든 것이 섬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는데⁶⁴, 그가 선택한 것은 섬의 지배자요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질서는 덧없는 것이라고 타로카드는 예언하고 있다.⁶⁵ 火는 陽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한 때로, “힘이

⁶³ 形을 갖추는 것은 五行氣가 구체화 되는 것으로, 그 기운이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로병송은 전성기를 맞은 작중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내적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形과 <내적 변화의 흐름>을 연결시켰다. 形과 神이 만들어 지는 것은 모두 剋을 받음으로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으로, 둘 다 相生의 작용에 속한다. 水剋生火 火生土에서 火의 形과 金의 神을 조성하는 것을 火氣로 볼 것인가, 水氣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剋生에서, 生의 작용은 剋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形과 神을 조성하는 것은 火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한 작용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水氣이다.

⁶⁴ cf. VLP, p.65

« Il ne doutait plus que tout se jouait désormais sur ses relations avec elle(île) et sur la réussite de son organization. »

⁶⁵ cf. *Ibid.*, p.7

« Il semble y parvenir, mais n'oublions pas que ce démiurge est aussi bateleur :

나 충실했던 내용은 외관적인 수려함과 공허한 허식으로 바뀌어진다”⁶⁶. 火는 자연에서 보면 꽃이 피는 시기인데, 겉으로는 아름다움이 위세를 최고로 뽑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면적인 힘은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⁶⁷ 사람으로 따지면 실속은 없고 겉치레만 하는 격이다. 로뱅송은 자연의 질서에 문명의 질서를 강요하며 섬을 정복해 가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문명화 작업은 처음부터 타자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그가 온갖 노력 끝에 세워놓은 통치된 섬은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통치된 그 섬이 그의 눈에 헛되고 미친 기도로 보이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Mais il était certain que l'île administrée lui apparaissait de plus en plus souvent comme une entreprise vaine et folle.⁶⁸

2. 스페란차(섬)-土

1) 거부되고, 통치 받는 일개 섬-土

난파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시착하게 된 섬은 로뱅송에게 있어 영원히 화합될 수 없는 대상이다. 탈출호의 계획이 무산되자 로뱅송은 진창으로 들어간다. “진창은 악덕, 포기, 체념”⁶⁹이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죽음의 공

son oeuvre est illusion, son ordre est illusoire. Malheureusement il l'ignore. Le scepticisme n'est pas son fort.»

⁶⁶ 한동석, *op. cit.*, p.66.

⁶⁷ cf. *Ibid.*, p.66

⁶⁸ VLP, p.144

⁶⁹ VLP, p.59.

« Et vice le renoncement, l'abandon, la résignation, bref la souille. »

포로 인해 섬에서의 생활을 수용하기로 결심한 로벵송은 탄식의 섬대신 스페란차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스스로 제작한 헌장을 통해 로벵송은 섬의 총독이 되고 스페란차는 그의 식민지가 된다.

제 1조 - (...), 1737년 12월 19일 요크 시에서 출생한 로벵송 크루소는 후안페르난데스 제도와 칠레의 서해 연안 사이의 태평양 상에 위치한 스페란차 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 자격으로 그는 섬 전역과 그 영해 일원에 대하여 내적인 빛이 지시하는 의미와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전권을 수입받는다.

ARTICLE PREMIER. - (...), Robinson Crusoé, né à York le 19 décembre 1737, est nommé Gouverneur de l'île de Speranza située dans l'océan Pacifique entre les île Juan Fernández et la côte occidentale du Chili. En cette qualité, il a tout pouvoir pour légiférer et exécuter sur l'ensemble du territoire insulaire et de ses eaux territoriales dans le sens et selon les voies que lui dictera la Lumière intérieur.⁷⁰

섬은 삶의 의욕을 잃은 로벵송에게는 거부의 대상이며, 삶의 의욕을 되찾은 로벵송에게는 정복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지닌다. 로벵송과 섬의 관계는 주연과 조연으로 불균형한 관계이다. 불균형한 곳에 생이 있을 수 없다. 五行에서 相生과 相剋은 다섯 가지의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균형은 한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비중이 고를 때 유지된다. 한 요소가 너무 과하거나 또는 모자랄 경우에는 전도가 일어나며, 한 요소의 상태는 전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생한다는 것은 생을 받는 대상이

⁷⁰ *Ibid.*, p.82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인격을 갖춘 스페란차(섬)-土

이성과 합리성의 상징인 물시계가 멈춘 어느 날, 섬은 로벵송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물시계는 水로 기능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문명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火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시계가 멈춘 것은 火의 기운이 일부 멈춘 것으로, 로빈슨의 맹렬한 불길에 가려져 있던 土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로벵송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신이 외롭게 남아 고생하고 있었던 그 섬 속에서 평소에는 그의 보잘것없는 걱정들에 가려져 있었던 더욱 신선하고 더욱 따뜻하며 더욱 우정에 찬 어떤 다른 섬을 발견하는 것만 같았다.

Robinson crut découvrir une *autre île* derrière celle où il peinait solitairement depuis si longtemps, plus fraîche, plus chaude, plus fraternelle, et que lui masquait ordinairement la médiocrité de ses préoccupations.⁷¹

그 동안 자신이 그렇게 거부하고 부정했던 섬,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고도의 문명 상태로 탈바꿈 시키려 했던 섬에서 로벵송-火는 처음으로 따뜻하며 우정에 찬 ‘다른 섬 *une autre île-土*’의 모습을 발견한다.

⁷¹ *Ibid.*, p.109.

물시계가 멈춘 순간, 모든 사물들은 본질을 되찾아 모든 속성들을 마음껏 개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완성시켜 가고, 그 자체의 모든 속성들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힘을 얻어 로뱅송 없이도 저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한다⁷². 로뱅송은 이 순간을 ‘순수의 순간 un moment d’innocence’⁷³이라고 명명한다. 섬은 더 이상 수동적인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격체 une personne’⁷⁴로서 자리잡는다. 스페란차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로뱅송은 인간이 아닌 섬 또한 “자기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부품인 타자”⁷⁵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타인의 존재가 인간 개인에게는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 수 있다.

Je sais maintenant que si la présence d’autrui est un élément fondamental de l’individu humain, il n’en est pas pour autant irremplaçable.⁷⁶

로뱅송은 섬에 좀더 내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 깊숙이 들어간 그는 ‘스페란차의 배 le ventre de Speranza’⁷⁷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몸 모양의 구멍을 발견하는데, 태아와 같은 자세를 취하자 몸이 꼭 들어맞는다.

⁷² cf. *Ibid.*, pp.108-109.

⁷³ *Ibid.*, p.108

⁷⁴ *Ibid.*, p.118

⁷⁵ *Ibid.*, p.62

« Autrui, pièce maîtresse de mon univers(...) »

⁷⁶ *Ibid.*, p.134

⁷⁷ *Ibid.*, p.121

그것은(=동굴은) 신기하게도 자궁 속의 따사로운 어둠의 평화와 무덤의 평화를, 삶의 내면과 피안을 한데 합쳐놓는다.

Elle réunit miraculeusement la paix des douces ténèbres matricielles et la paix sépulcrale, l'en deçà et l'au-delà de la vie.⁷⁸

인격을 갖춘 스페란차는 이제 어머니가 된다. 하지만 <어머니-섬>과의 관계에서 로벵송은 불균형을 느낀다. 수확량이 줄어들고 물이 말라버리자 로벵송은 스페란차가 자신이 부여한 <모성적인 사명 cette vocation maternelle>⁷⁹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여기는데, 더욱이 동굴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을 사출함으로써 근친상간 즉, <어머니-섬>을 더럽혔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는 더 이상 동굴 내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인격체가 된 섬은 로벵송의 정신적인 명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 또한 섬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 <어머니-섬>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운명을 감당해야 할 성숙한 남자임을 자각한 로벵송에게 스페란차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골짜기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어느날 로빈슨은 자신이 사람의 몸 위에 누워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섬과 성적 관계를 갖는다.

장미빛 골짜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나의 성기로 나의

⁷⁸ *Ibid.*, p.130

⁷⁹ *Ibid.*, p.131

무덤을 뚫고 그 속에서 죽었다. 관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잠정적 죽음으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나를 싣고 가는 변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을 건너섰다는 것 역시 적어두고자 한다. Qu'ai-je fait dans la combe rose? J'ai creusé ma tombe avec mon sexe et je suis mort, de cette mort passagère qui a nom volupté. Je note également que j'ai franchi ainsi une nouvelle étape dans la métamorphose qui m'empote.⁸⁰

그는 ‘장미빛 골짜기 une combe rose’⁸¹라는 이름에서 ‘요부 les lombes’⁸²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스페란차는 로뱅송의 아내가 되고, 둘의 결합으로 예로부터 인간과 대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종자라고 알려진 ‘만드라고라 Mandragore’⁸³가 피어나는데, 이로 인해 스페란차는 더욱 여성화 된다. 이렇게 토인 스페란차는 배경적 존재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나며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로뱅송과 동등한 관계가 된다(火生土).

養生의 원리를 로뱅송과 스페란차의 관계에 대입해보자. 火는 로뱅송이고 土는 스페란차이다. 火는 水의 炁을 받아 자신의 形과 土의 神을 조성한다(표 12 참조). 生한다는 것은 작중 요소가 로뱅송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⁴. 따라서 스페란차-土가 인격화-水⁸⁵되어 로뱅송-火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균형관계를 이루는 것 즉, 배경적인 존재에서 로뱅송의 타자로서 자리잡는 것은 火가 水의 영향을 받아 土의 神을 조성하는

⁸⁰ *Ibid.*, p.154

⁸¹ *Ibid.*,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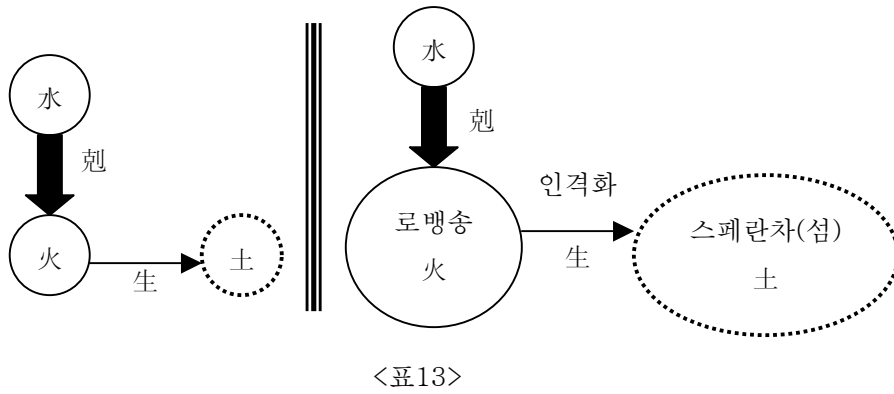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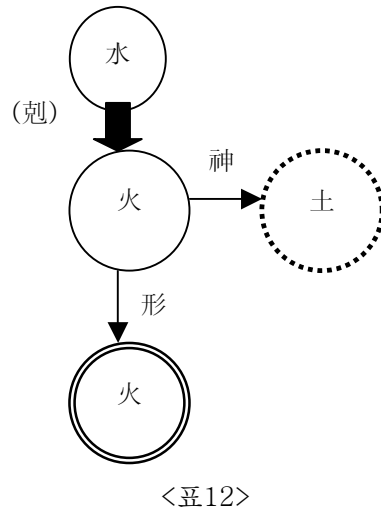
⁸² *Ibid.*, p.147

⁸³ *Ibid.*, p.157

⁸⁴ <줄거리 흐름>에 해당한다.

⁸⁵ 물은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작용으로 볼 수 있다(水剋生火 火生土)⁸⁶.



⁸⁶ 剋을 ‘영향을 끼치다’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剋은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陰陽의 기운은 둘 중 어느 것이 좋다,나쁘다 또는 긍정,부정의 척도로 잴 것이 아니다. 타로카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럼, 五行氣의 生과 剋의 흐름과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해안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土인 스페란차가 전성기를 맞게되는 것은 만드라고라-木에 의해서이다. 처음에 <아내-섬>은 로벵송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존재였지만, 성적 관계이후 스페란차가 둘의 아기인 만드라고라-木을 출산하면서 실재적인 타자로서 자리잡는다. 이것은 土가 木의 영향을 받아 土의 形을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표 14 참조). 養生에서 <土의 시기> 즉, 土의 形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木氣이다. 내적으로 <土의 시기>에 들어선 로빈슨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문명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木과 관련된 것이다. 土는 인생에 견주어보면 “40대의 중년기”⁸⁷이다. 유년기-木과 청년기-火에 거침없이 도전하고 실험적으로 살았다면, <土의 시기>는 “불혹不惑”⁸⁸의 시기로 설불리 나아가기 보다는 심사숙고 하는 때이다. 스페란차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 로벵송 내부에서 ‘인간화 humanisé와 탈인간화 déhumanisé’⁸⁹의 대립은 구체화 되고, 그럴수록 로벵송은 문명화 작업에 회의를 느낀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하게 이루어놓은 성과의 내용이 필경 공허해지고 말 것임을 로벵송은 느낄 수 있었다. 잘 통치된 섬은 다른 섬을 위하여 그 영혼을 상실해 갔고, 헛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변해 가고 있었다.

Pourtant Robinson sentait toute cette oeuvre magnifique se vider inexorablement de son contenu. L’île administrée perdait son âme

⁸⁷ cf. 낭월 박주현, *op. cit.*,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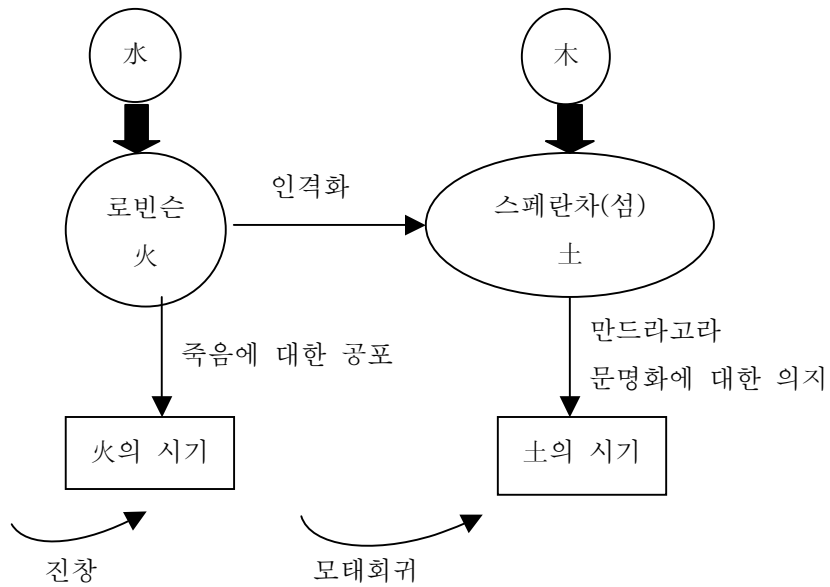
⁸⁸ 공자, 홍승직 역해, 『논어』, 고려원, 1997, p.24

«子曰, 吾十有五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호라»

⁸⁹ VLP, p.135

인간화는 문명화 되어가는 것을, 탈인간화는 문명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au profit de l'autre île, et devenait semblable à une énorme machine tournant à vide.⁹⁰



<표14>

甦生과 더불어 로뱅송의 내적 변화는 통과제의적인 과정을 거친다. 로뱅송은 <어머니-섬>과 <아내-섬>과의 관계에서 상징적인 죽음을 겪는다. 특히 <어머니-섬>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죽음의 경험은 시몬느 비에른느가 제시하는 ‘통과제의적 죽음 mort initiatique’의 세 가지 항목 중 두 번째인 ‘모태회귀 le retour à l'état embryonnaire’⁹¹에 해당한다. 통과제의는 이전과는 다른 사

⁹⁰ *Ibid.*, p.161.

⁹¹ Simone VIERNE, *Rite, roman, initiation*,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3, p.22
 « (...) trois rubriques :
 les rituels initiatiques de mise à mort,
 le retour à l'état embryonnaire (regressus ad uterum),
 la descente aux enfers et (ou) la montée au ciel

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⁹² 따라서 통과제의적 죽음은 생명의 약속으로 충만한 귀환과도 같다. 로벵송은 후일 이 시기를 ‘대지적 시기 période tellurique’⁹³라 부른다. 인격화 됨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비중을 갖춘 스페란차-土와의 관계(水剋生火 火生土)를 통해서 로빈슨은 통과제의적인 죽음을 겪고, 그럼으로 해서 내적으로 <火의 시기>에서 <土의 시기>로 입문한다.(표14 참조)

3. 방드르디-金

1) 하인인 방드르디-金

탈인간적인 변모가 구체화되어감을 느끼던 로벵송은 자본주의의 정신의 상징이 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되뇌이며 자신을 재정비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물 의식에서 도망치는 아우라칸족을 구해준다. 타로의 예언대로 로벵송을 고독이라는 동굴에서 꺼내줄 금성-金을 만난 것이다⁹⁴. 하지만 로벵송과 금성의 만남은 이성을 절대시하는 18세기의 서구인과 제 3세계 ‘야만인 un sauvage’⁹⁵의 만남이다⁹⁶. 게다가 로벵송이 금성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⁹²cf. *Ibid.*, pp.20-21

⁹³ VLP, p.118

⁹⁴ cf. *Ibid.*, p.10

« Voilà qui va faire sortir l’Hermite de son trou! Vénus en personne émerge des eaux et fait ses premiers pas dans vos plates-bandes. »

⁹⁵ *Ibid.*, p.170

⁹⁶ 18세기 이성주의와 경험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문명의 우월한 힘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자신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더 수직적인 모습을 띤다. 로뱅송에게 검둥이 튀기인 금성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열등한 종족에 불과하다.⁹⁷ 그렇기 때문에 로뱅송은 야만인인 금성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타자 즉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⁹⁸ 따라서 사람의 이름도 물건의 이름도 아닌 요일에서 이름을 따와 방드르디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섬의 총독이자 ‘방드르디의 주인 son maître’⁹⁹이며 ‘목사 le Pasteur’¹⁰⁰, ‘주교 épiscopale, 임금royal, 두령le chef’¹⁰¹인 로뱅송과 그의 ‘노예 esclave’¹⁰²이자 ‘하인 laquais’¹⁰³인 방드르디의 수직적인 공동생활이 시작된다.

이제 내게 주어진 공동생활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원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활이 나의 질서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쉬울 터이다. 나에게 주어진 방향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여러 해에 걸쳐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체제에 나의 노예를 예속시키는 거다. 스페란차와 그가 그들의 결합에 다같이 덕을 본다는

보다 ‘열등한’민족들을 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고는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가치를 만들어내어 제국주의 정책을 합리화시켰다.

⁹⁷ cf. VLP, p.169

«Dieu m’a envoyé un compagnon. Mais, par un tour assez obscur de sa Sainte Volonté, il l’a choisi au plus bas degré de l’échelle humaine. Non seulement il s’agit d’un homme de couleur, mais cet Araucanien costinos est bien loin d’être un pur sang, et tout en lui trahit le métis noir ! (...) –compte tenu de l’extrême précocité de ces races inférieures (...).»

⁹⁸ cf. *Ibid.*, p.170

« Un sauvage n’est pas un être humain à part entière. »

⁹⁹ *Ibid.*, p.171

¹⁰⁰ *Ibid.*, p.172

¹⁰¹ *Ibid.*, p.174

¹⁰² *Ibid.*, p.170

¹⁰³ *Ibid.*, p.171

사실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날이 오면 이 같은 나의 사업은 성공을 보장 받게 될 것이다.

Cette société m'est donnée sous sa forme la plus rudimentaire et la plus primitive certes, mais il ne m'en sera sans doute que plus facile de la plier à mon ordre. La voie qui s'impose à moi est toute tracée : incorporer mon esclave au système que je perfectionne depuis des années. La réussite de l'entreprise sera assurée le jour où il n'y aura plus de doute que Speranza et lui profitent conjointement de leur réunion.¹⁰⁴

방드르디는 로벵송에게 완벽할 만큼 고분고분하지만, 로벵송은 이 완벽한 길들여짐 속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감지한다. 방드르디의 복종심을 극한까지 밀고 가서 시험해보고 싶어진 로벵송은 구덩이를 하나 파서 파낸 흙을 담을 두 번째 구덩이를 파고, 또 그 두 번째로 파낸 흙을 담을 세 번째 구덩이를 파는 터무니 없는 일을 강요한다. 로빈슨은 火이고 방드르디는 金이다. 불이 금속을 녹이듯이, 火는 金을 烔한다(火烔金). 이를 인간 관계에 대입해보면 상관과 부하직원의 예를 들 수 있다. 火는 좀 거친 상관이다. 火는 金을 보면 무조건 통제하고 싶어한다. 자기 마음대로 金을 주물러야 속이 좀 시원하다. 金이 시키는 대로 듣지 않으면 손이 올라간다. 원래 火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자신의 말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 더구나 상대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참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로 억압을 하는 형태가 성립한다. 火는 金에 대

¹⁰⁴ *Ibid.*, p.170

해서 그렇게 균립한다.¹⁰⁵ 金은 오행요소 중에서 가장 강건한 성분이다. 火는 金을 제련한다(火剋生金). 약한 金이 너무 강한 火를 만나면 녹아버리지만(火剋金), 金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火가 꺼진다(火能剋金 金多化熄). ‘로뱅송 대왕 Robinson-Roi’¹⁰⁶의 불길은 강렬하다. 방드르디는 어떤 金일까. 타로 점에서도 금성 카드의 다음은 ‘사수좌 le Sagittaire’카드였는데, 선장은 카드의 의미를 “날개 달린 천사로 변신한 금성이 해를 향해 화살을 날려보낸다”고 해석했다.¹⁰⁷ 이는 방드르디가 로뱅송에게 순순히 녹아버릴 약한 金이 아니라 화살을 쏠 정도의 강한 金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2) 동반자인 방드르디-金

방드르디는 로뱅송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준다. 웃음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뚜르니에는 『생각의 거울 *Le Miroir Des Idées*』 (1994)에서 “사람은 웃음에 의해서 기계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범인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구성원에게 벌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에 대한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¹⁰⁸ 방드르디는 간헐적으로 폭소를 터뜨리는데, 로뱅송

¹⁰⁵ 낭월 박주현, *op. cit.*, p.287

¹⁰⁶ VLP, p.8

¹⁰⁷ *Ibid.*, p.10

« Arcane sixième : le Sagittaire. Vénus transformée en ange ailé envoie des flèches vers le soleil. »

¹⁰⁸ cf. Michel TOURNIER, *Le Miroir Des Idées*, Mercure de France, 1944, p.31.

« Il existe plusieurs théories du rire. La plus achevée est celle proposé par Henri Bergson dans son livre *Le Rire*(1900).(…) Par le rire, chaque membre de la société est invité à punir tout autre membre qu’il prendra en flagrant délit de conduite mécanique.(…) Le comique surgit chaque fois que du mécanique se

은 자신의 절대적인 질서와 권위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그의 웃음에서 위협을 느낀다.

어느 날 물시계가 멈춘다. 앞서 물시계가 멈춘 순간에 섬이 그 주체성을 드러냈듯이, 방드르디 또한 로뱅송의 질서가 정지한 이 순간에 자신의 속성을 개화시킨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섬에 대해서나 이제는 주인이었다.

Il(Vendredi) était maître de lui, maître de l'île.¹⁰⁹

방드르디는 선인장에 옷을 입히고, 나무들을 뽑아 거꾸로 심고, 식물인간으로 변신하는 등 기상천외한 일들을 벌인다. 방드르디가 주체성을 되찾음으로써 그가 로뱅송의 합리적인 조직을 확고히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동요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제 로뱅송에게 방드르디는 단지 순종적인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질서를 파괴하는 ‘교란자 un élément perturbateur’¹¹⁰가 된다.

“금은 살기를 가지고 있다”¹¹¹. 그렇다고 금이 나쁜 것은 아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으로 사람에게 金氣가 부족하면 결단력이 약하다¹¹². 金의 살기는 가을을 떠올려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을-금은 다가올 겨울-水를 대비하여 여름-火에 무성하던 잎사귀들을 떨어뜨리고 넘쳐 나던 에너지를 수렴하

plaque sur du vivant. »

¹⁰⁹ VLP, p.181.

¹¹⁰ *Ibid.*, p.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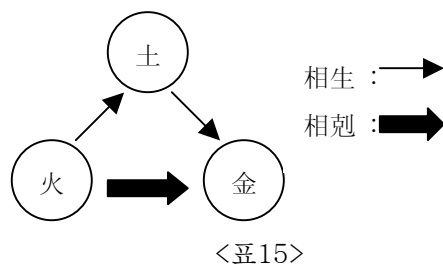
¹¹¹ 낭월 박주현, 『왕초보사주학 입문편』, 동학사, 2003, p.53

¹¹² cf. *Ibid.*, p.54

여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러한 가을-金의 작용은 金의 살기에 의한 것이다. 로뱅송-火에게는 살벌하게만 느껴지는 폭소를 지니고 있고, 주체성을 찾은 이후 로뱅송의 문명-火화 작업에 제동을 거는 방드르디는 살기를 지닌 金을 닮았다.

한편 주체적인 방드르디와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 로뱅송의 정신적인 변모는 계속된다. 로뱅송은 방드르디가 병든 새끼 독수리에게 살아있는 구더기를 씹어먹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이 문명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죽은 쓰레기 un ballast mort’¹¹³인지를 자문한다.

그러던 어느날, 장미빛 골짜기를 찾은 로뱅송은 방드르디가 스페란차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아내를 유린한 방드르디를 폭력으로 응징한다. 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스페란차가 방드르디를 유혹한 것이고 방드르디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로뱅송은 火, 방드르디는 金, 스페란차는 土, 즉 火-金-土의 관계이다. 火는 土를 生하고(火生土), 土는 金을 生하며(土生金), 火는 金을 剋한다(火剋金).(표15 참조)



¹¹³ *Ibid.*, p.200

五行에서는 “木은 생명의 체體요, 火는 성장의 단계요, 土는 성숙의 단계이며, 金은 결실의 단계가 되고, 水는 수축의 단계로 다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준비의 단계”¹¹⁴라고 본다. 土가 木火와 金水사이에 들어있는 이유는 “첫째로 성장을 정지하고 성숙으로 전환하려는 것”¹¹⁵으로, 계절에 대입을 해 보면 봄-木·여름-火에서 가을-金·겨울-水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기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金火의 相爭을 막으려는 것”¹¹⁶이다. 爭은 다툰다는 뜻이다. 火는 陽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한 상태이고, 金은 “陽의 기운에서 陰의 기운으로”¹¹⁷ 넘어가는 상황이다. 한창인 陽의 표면을 金이 陰으로 덮는 일은 여간해서 쉽지 않다. 따라서 중화의 속성을 지닌 土가 둘 사이의 중개자로 나선다.¹¹⁸ 이러한 관점에서 土인 스페란차는 火인 로빈슨과 金인 방드르디의 相爭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방드르디-金은 주체성을 찾은 이후 로뱅송-火로부터 일방적으로 췌을 당하는 것(火剋金)이 아니고, ‘문명인VS야만인’, ‘어른VS아이’¹¹⁹의 모습으로 로뱅송-火와 대립한다(金火相爭).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이며, 따라서 그들의 대립은 불완전한 대립이다. 이런 그들의 사이

¹¹⁴ 조동운, 『Well-Being을 위한 명리학』, 이누커뮤니케이션, 2005, p.48

¹¹⁵ 한동석, *op. cit.*, p.67

¹¹⁶ *Ibid.*,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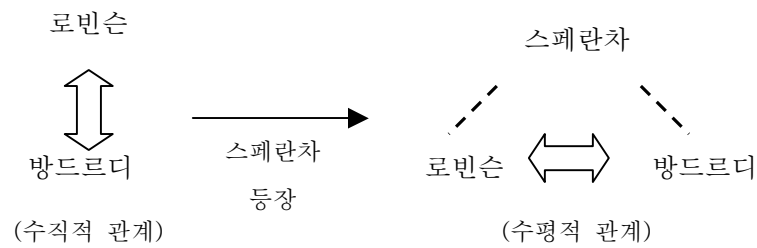
¹¹⁷ 낭월 박주현, *op. cit.*, p.164

¹¹⁸ cf. *Ibid.*, p.68

¹¹⁹ Arlette Bouloumié,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de Tournier*, Gallimard, 1991, p.52, 재인용, Michel TOURNIER, Quand Michel Tournier récit ses livres pour les enfants, Le Monde, 24, décembre,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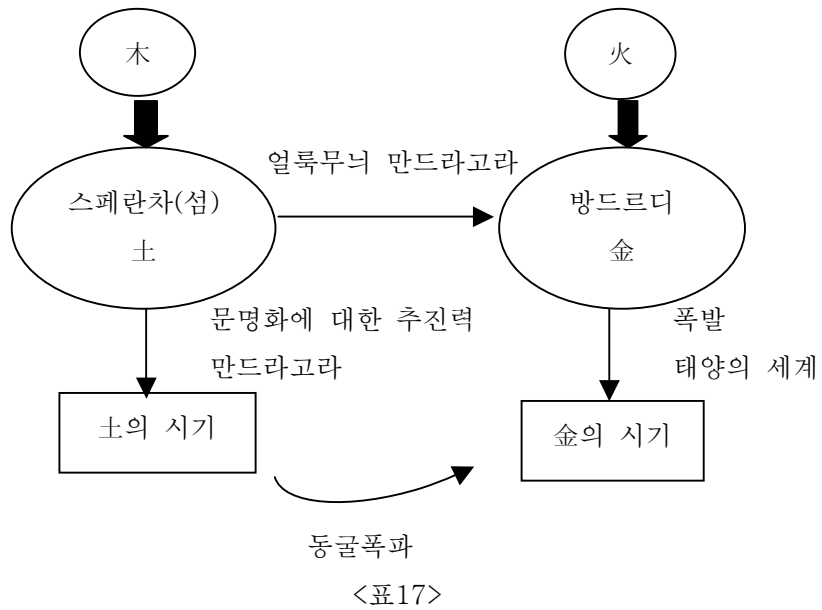
«Le couple enfant-adulte se retrouve dans le couple Robinson(barbe et peau de bique) et vendredi(nudité et rires).»

에 스페란차-土가 등장한다. 스페란차-土는 방드르디-金을 유혹한다. 유린당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했다는 것은 스페란차-土가 방드르디-金를 로뱅송-火와 동등한 한 명의 남성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다. 스페란차-土는 더 이상 로뱅송-만의 아내가 아니라 방드르디-金의 연인이기도 하다. 그 증거로 스페란차-土는 로뱅송-火뿐만 아니라 방드르디-金과의 성적 관계 이후에도 얼룩무늬 만드라고라-木을 탄생시킨다.



<표16>

剋生의 시각에서 土가 金을 生하는 것은 木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한 것인데 (木剋生土 土生金), 방드르디가 로뱅송과 수평적 관계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스페란차-土에 작용한 木氣인 얼룩무늬 만드라고라이다(표17 참조). 이처럼 로뱅송-火와 방드르디-金의 불균형한 관계를 스페란차-土가 조율해주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로뱅송은 자신이 강요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방드르디가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처음으로 신경에 거슬리기만 하는 이 천하고 바보 같은 혼혈아의 모습 저 속에는 어떤 다른 방드르디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본다. 마치 그가 옛날에, 동굴과 골짜기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통치된 섬 속에는 다른 섬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듯이.

Pour la première fois il entrevoit nettement, sous le mépris grossier et stupide qui l'irrite, l'existence possible d'un *autre Vendredi* – comme il a soupçonné jadis, bien avant de découvrir la grotte et la combe, une *autre île*, cachée sous l'île administrée.¹²⁰

¹²⁰ VLP, p.209.

더 이상 장미빛 골짜기를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로벵송은 이제 통치된 섬, 어머니로서의 섬, 아내로서의 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방드르디의 실수로 동굴이 폭파되고 그 여파로 섬의 일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동굴과 동량형기 표준국에는 로벵송에게 문명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화약을 포함해서 문명세계와 로벵송을 이어주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문명과의 연결고리인 동굴 등이 폭파된 것은 로벵송이 <金の 시기>로 입문하기 위해 치르는 통과제의적 죽음이자 방드르디-금이 전성기를 맞게끔 하는 火氣의 역할을 한다.(표17 참조).

金は “나이로 치면 50대”¹²¹를 말하는데, 공자는 50세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일을 아는 나이라 해서 “지천명知天命”¹²²이라 했다.¹²³ 천명과도 같이 『방드르디』에서 로벵송에게 주어진 임무는 태양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태양적 변모를 완성하는 것이다. <金の 시기>에 들어선 로벵송은 섬과 방드르디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직은 어렵겠지만 태양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감한다. 로벵송은 언제 등장할 지 모르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위해 자신이 탈인간화 되어가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었는데, <金の 시기>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태양의 세계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廻生적인 측면에서 볼 때, <金の 시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火이다(火廻生金). 내적으로 <金の 시기>를 맞은 로벵송에게 이슈가 되는 火氣는 태양의 세계와 태양의 변모에 관한 것이다(표17 참조). 이

¹²¹ 낭월 박주현, 『알기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2004, p.99

¹²² 공자, *op. cit.*, p.24

¹²³ 낭월 박주현, *op. cit.*, p.182

에 관해서는 II.4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굴의 폭파로 다시금 야생의 자연 앞에 던져진 로벵송에게 방드르디는 ‘동료 son compagnon 이자 형제 son frère’¹²⁴ 가 된다. 이제 둘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가 되어 생활해나간다. 따라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던 로벵송과 방드르디의 관계는 보다 상호적이고 자유스러워진다.

로벵송과 방드르디 사이의 관계는 깊고 인간적인 것이 되었지만 동시에 까다로워 지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가 전적으로 원만하기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에는-폭발 사건이 있기 전에는-그들 사이에 실제로 다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다. 로벵송이 주인이었으니 방드르디는 그저 복종할 따름이었다. 로벵송은 방드르디를 질책하거나 때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방드르디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 로벵송과 동등해진 이상, 이제 그들은 서로 성을 내며 다퉴 수 있었다.

Les relations entre Robinson et Vendredi s'étaient approfondies et humanisées, mais elles s'étaient aussi compliquées, et il s'en fallait qu'elles fussent sans nuages. Autrefois-avant l'explosion-, il ne pouvait pas y avoir vraiment de dispute entre eux. Robinson était le maître, Vendredi n'avait qu'à obéir. Robinson pouvait réprimander ou même battre Vendredi. Maintenant que Vendredi était libre et l'égal de Robinson, ils pouvaient se fâcher l'un contre l'autre.¹²⁵

그들은 대나무로 가짜 로벵송을 만들고 모래조각으로 가짜 방드르디를 만들

¹²⁴ VLP, p.220

¹²⁵ *Ibid.*, p.242.

어 화풀이를 하는 등 서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주인과 노예의 역할 전환 놀이를 하며 동등한 관계를 새로이 형성해간다. 방드르디는 알바트로스의 깃털로 떨어지지 않는 화살을 만들고, 후일 로뱅송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앙도아르로 연을 만들어 공중에 날리고, 바람의 노래를 하는 하프를 만들며 로뱅송을 ‘새로운 시대 *une ère nouvelle*’¹²⁶로 인도한다.

4. 태양의 세계

로뱅송이 처음 섬에 도착하자마자 보인 행동은 고사리로 모자를 만들어 태양빛을 가리는 것이었지만, 방드르디와의 생활을 통해 태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매일 아침 ‘신성한 일출 *héliophanie*’¹²⁷의 의식을 기다린다. 예전에 진창의 해독제로 햇빛이 침처럼 내리 쏘히는 구덩이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던 로뱅송은 태양의 축성식을 치르며 ‘태양의 기사 *chevalier solaire*’가 된다.

뿔어 나온 첫번째 광선은 믿음직하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내 붉은 머리털 위에 흘러내렸다. 두 번째의 광선은 옛날에 타는 숯불이 예언자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하였듯이 내 두 입술을 정화시켜 주었다. 마침내 두 개의 불 칼이 내 어깨를 쏘실 때 나는 태양의 기사가 되어 일어섰다. 그러자 곧 뜨거운 화살들이 날아와 내 얼굴과 가슴과 두 손을 찌르면서 내 장엄한 축성식의 잔치가 끝

¹²⁶ *Ibid.*, p.216

¹²⁷ *Ibid.*, p.331, no.95

« *héliophanie* - Lever du soleil considéré comme une divinité : Mot créé par Michel Tournier dans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

나갔고 한편으로는 슬한 빛의 왕관들과 왕홀들이 나의 초인적인 상을 뒤덮고 있었다.

Le premier rayon qui a jailli s'est posé sur mes cheveux rouges, telle la main tutélaire et bénissante d'un père. Le second rayon a purifié mes lèvres ; comme avait fait jadis un charbon ardent celles du prophète Isaïe. Ensuite deux épées de feu ayant touché mes épaules, je me suis relevé, chevalier solaire. Ausitôt une volée de flèches brûlantes ont percé ma face, ma poitrine et mes mains, et la pompe grandiose de mon sacre s'est achevée tandis que mille diadèmes et mille sceptres de lumière couvraient ma statue surhumaine.¹²⁸

태양의 기사가 된 로뱅송은 연대기적 시간이 순환적 시간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불멸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타로점에서 꼬리를 서로 물고 있는 뱀의 상징으로 예언된 순환적인 성 즉, 성의 차별이 초월된 태양의 성인 양수한몸 androgyne의 경지에 도달한다.

뚜르니에는 『방드르디』에서 로뱅송을 도달시킬 예정인 <태양의 세계>를 꼬리를 문 뱀인 <우로보로스ouroboros>와 <세계의 알 l'oeuf cosmique>로 묘사하고 있다. <태양>은 많은 민족에게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매일 밤 죽음의 세계로 하강했다가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은 불멸의 존재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태양은 빛과 생명의 근원이며, 완전함과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¹²⁹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말한다. 우로보로스에게 끝이란 없으며,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우로보로스의 영원함

¹²⁸ *Ibid.*, p.249.

¹²⁹ cf. Jean Chevalier et Alain Gheerbrant, *op. cit.*(vol.4), pp.214-215

은 정지된 상태의 영원함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의 영원이다. 따라서, 끝없는 순환을 통해 완전함을 이루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은 검은색이고 반은 흰색인 우로보로스는 하늘과 땅 또는 선과 악, 낮과 밤 등의 대립되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을 상징한다.¹³⁰ 만월을 보며 로벵송이 쌍둥이 신화를 연상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레다의 알과 같은 달은 <세계의 알>을 말한다. 세계의 알을 창조신화로 갖는 민족들은 매우 많다.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보면, 無에서 有가 생기고, 有가 차츰 커지면서 알의 형태가 된다. 1년이 지나서 알은 반으로 갈라졌는데, 한 조각은 은으로 되어있고, 다른 조각은 금으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은은 땅을, 금은 하늘을 뜻한다¹³¹. “이집트 의식에서 우주는 ‘이중의 힘이 위대한 하나가 되는 시간에 인식되는 알’과 동일시 되는데, 그들의 신인 라Ra는 알 속에서 광채를 드러낸다”¹³².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알은 완전함과 불멸성, 부활, 무한을 상징한다. 우로보로스와 세계의 알에서는 太極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

결국 로벵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태양의 세계는 시간과 성의 구분이 초월 되고, 끝이 곧 처음이자, 완성이 곧 시작인 세계 즉, 陰陽도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인 太極의 세계이다. 그렇다고 로벵송이 정말 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뚜르니에는 타로의 예언을 빌어 획득하기는 한없이 어렵고 간직하기는 더욱 어려운 완벽한 인간성의 극치에 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연금술에서 금은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금속으로,

¹³⁰ cf. *Ibid.* (vol.3), p.340

¹³¹ cf. *Ibid.*(vol.3), pp.299-305

¹³²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p.359

상업적인 가치보다 불멸과 절대적 자유라는 고도의 영적인 의미가 강조되듯이

¹³³, 로뱅송의 변모도 정신적인 것이다.



<http://web.org.uk/>

picasso/alchemy_34.jpg



Pelecanos, Theodoros ,

1478, synosius

방드르디에 의해 로뱅송이 태양의 기사로 변모하는 내용을 뚜르니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하고 있다.

¹³³ cf. Simone VIERNE, *op. cit.*, p.30

« D'autant que l'or à obtenir, le métal parfait, le plus « mûr », est porteur d'un symbolisme hautement spirituelle, où la maturité est immoralité et liberté absolue. »

Terre+ Air = Soleil

Robinson terrien+ Vendredi = Robinson solaire¹³⁴

두 공식을 합치면 ‘대지적 로벵송 + 공기적¹³⁵ 방드르디 = 태양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바슐라르는 『공기와 꿈 *l’Air et les Songes*』 (1943)에서 역동적인 바람과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가 공기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¹³⁶ 五行에서도 바람과 공기는 木에 속한다¹³⁷. 대지는 土이다. 따라서 ‘대지적 로벵송’은 ‘土·火’로, ‘공기적 방드르디’는 ‘木·金’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벵송이 도달하고자 하는 태양은 太極과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적 로벵송 + 공기적 방드르디 = 태양적 존재

土 · 火 + 木 · 金 = 太極

하지만 太極은 木·火·土·金·水로, 위의 공식에서는 水의 부재가 문제시 되는데, 水의 속성은 방드르디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타로점은 방드르디에 대한 예언

¹³⁴ Michel TOURNIER, *Le Vent Paraclet*, Gallimard, 1977, p.235.

¹³⁵ cf. VLP, p.239

«(...)le sens demeurait longtemps caché, mais avait presque toujours quelque rapport aux choses aériennes.»

¹³⁶ cf. Gaston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Essai sur l’imagination du mouvement*, Librairie José Corti, 1981, p. 306

« Table des Matière : CH. X -L’arbre aérien, CH. X I -Le Vent »

¹³⁷ cf. 한규성, *op. cit.*, p.135

에서, 금성이 물에서 나타나 로뱅송에게로 온다고 했고, 로뱅송은 후에 물 속에서 걸어 나오는 방드르디의 모습을 보며 신화 속의 비너스를 떠올린다. 이처럼 바다에서 태어난 여신 비너스의 화신인 방드르디는 水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나는 그가 웃으면서 자신의 몸을 뒤덮는 파도의 거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본다. 우미(비너스와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낱말이 머리에 떠오른다.

Je le regarde s'arracher en riant à l'écume des vagues qui le baignent, et un mot me vient à l'esprit : la vénusté.¹³⁸

따라서 '공기적 방드르디'는 木氣만 가지고 있는 金이 아니라, 木氣와 水氣를 가지고 있는 金으로, '木·水·金'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뚜르니에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대지적 로뱅송 + 공기적 방드르디 = 태양적 존재

土 · 火 + 木 · 水¹³⁹ · 金 = 太極

공기적 속성을 지닌 방드르디는 로뱅송을 대지적 세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늘의 세계 즉, 태양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속담

¹³⁸ VLP, p.262

¹³⁹ 방드르디의 水氣는 분명히 속성이 명시된 다른 氣(土,火,木,金)에 비해 기운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공식에서는 다른 기운에 비해 글씨의 크기를 작게 했다. 五行에서 한 요소의 상태는 전체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水氣의 연약함으로 인해 완전한 太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에서 처럼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방드르디가 지닌 木氣의 바람이 부채가 되어 로빈슨-火를 생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木生火).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처럼 대지의 암흑 속에 숨어지내던 로뱅송은 방드르디의 도움으로 대지로부터 나와 금빛 갑옷과 금가루로 반짝이는 날개를 단 ‘나방 phalène’¹⁴⁰이 된다. 나비와 나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방은 황혼의 나비, 저녁에 활동하는 나비”¹⁴¹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나비는 낮에 활동하는데, 고대 멕시코인들에게 있어 나비는 태양을 상징했다¹⁴². 방드르디는 로뱅송을 태양의 세계로 이끌지만, 로뱅송은 금빛 나비가 아니라 밤의 세계에 속하는 나방으로 변모한다. 금빛 나방은 태양의 광선이 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허약해져 버리고 마는 불완전한 존재다.¹⁴³ 따라서 로뱅송이 아직 완전한 태양적 변모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

水の 속성은 바다와 <방드르디의 떠남>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다는 로뱅송을 문명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광기와 죽음으로 유혹하는 등

¹⁴⁰ *Ibid.*, p.261

¹⁴¹ *Ibid.*, p.332, no.102

«phalène : grand papillon nocturne et crépusculaire »

¹⁴² Jean Chevalier et Alain Gheerbrant, *op. cit.*(vol.4), p.219

« Il(Soleil) est parfois représenté par un papillon. »

¹⁴³ cf. VLP, p.261

« Mais le soleil a touché de sa baguette de lumière cette grosse larve blanche et molle cachée dans les ténèbres souterraines, et elle est devenue phalène au corselet métallique, aux ailes miroitantes de poussière d’or, un être de soleil, dur et inaltérable, mais d’une effrayante faiblesse quand les rayons de l’astre-dieu ne le nourrissent plus. »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었다. 굳게 닫힌 문과 같던 바다가 로벵송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데, 어느 날 수평선에 배가 나타난다. 화이트버드호에는 세속적인 문명사회를 대표하는 선원들이 타고 있다. 로벵송은 지난 28년 2개월 19일 동안의 변모를 거쳐 스페란차와 방드르디 그리고 자신 사이에 완벽한 행복의 균형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자신이 달성한 ‘태양적 행복 le bonheur solaire’¹⁴⁴의 지혜를 전파하기 위해 문명사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선원들이 보이는 거만함과 난폭함, 탐욕은 로벵송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지금의 로벵송에게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던 문명은 죽은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로벵송은 자신이 소외되었던 문명사회의 손길을 스스로 뿌리치고 섬에 남아 방드르디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는다.

고개를 돌리니 물결과 맞닿은 채 금빛 모래의 선을 그리면서 초목과 뒤엉킨 바위들이 파도치듯 한데 몰려있는 스페란차가 보였다. 바로 거기서 그는 ‘화이트버드호’를 떠나보낸 후 방드르디와 같이 그냥 섬에 남아 있겠다는 결심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막무가내로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의식했다.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과 자신 사이의 모든 차이점 이상으로, 그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분비해 놓은, 그리고 그들 자신이 몸담아 살고 있는 저 타락하고 치명적인 시간의 소용돌이에 대한 그의 공포 어린 거부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En tournant un peu la tête, il voyait Speranza, ligne de sable blond au ras des flots, déferlement de verdure et chaos rocheux. C’est là qu’il prit conscience de la décision qui mûrissait inexorablement en lui de laisser repartir le *Whitebird* et de demeurer dans l’île avec Vendredi. Plus encore que tout ce qui le

¹⁴⁴ *Ibid.*, p.273

séparait des hommes de ce navire, il y était poussé par son refus panique du tourbillon de temps, dégradant et mortel, qu'ils sécrétaient autour d'eux et dans lequel ils vivaient.¹⁴⁵

하지만 로벵송과 함께 섬에 돌아온 그날 밤, 방드르디는 말도 없이 로벵송을 떠난다. 방드르디가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로벵송에게 있어서 방드르디의 부재는 <로벵송-섬-방드르디>로 구축된 행복의 균형이 파괴된 것이자, 섬 생활의 유일한 동반자를 잃은 것이다. 통과제의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빠져나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포함하는데¹⁴⁶, 방드르디가 떠남으로 해서 로벵송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방드르디가 떠나는 것은 일종의 통과제의적 죽음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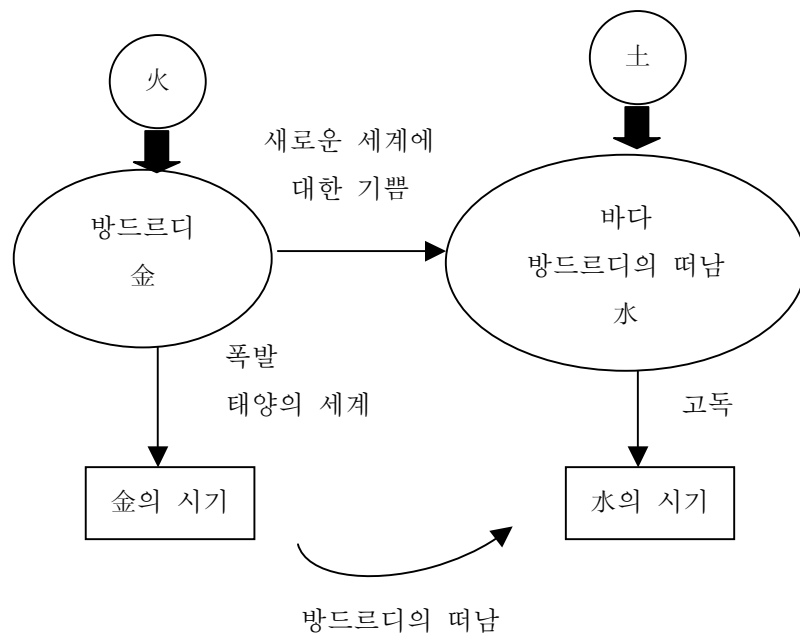
<방드르디의 떠남>은 로벵송이 <金の 시기>에서 <水の 시기>로 입문을 하게 되는 상징적인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水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순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가을-金이 가고 겨울-水가 오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즉, <방드르디의 떠남>은 방드르디로 나타나는 金の 끝이자 동시에 水의 시작인 것이다. 五行적으로 볼

¹⁴⁵ VLP, p.284

¹⁴⁶ cf. Simone VIERNE, *op. cit.*, p.19

« *L'entrée dans le domaine de la mort*, parce qu'elle est un acte solennel et irréversible, revêt la plupart du temps une allure assez dramatique. Deux caractères surtout la marquent, qu'on peut trouver séparément ou de façon concomitante : la perte de connaissance, réelle ou simulée, et l'entrée impossible, du moins aux yeux de la raison et de l'expérience quotidienne, que l'on nomme souvent du nom qu'elle a pris dans la légende grecque de la Toison d'Or, les Symplégades. »

때, <방드르디의 떠남>은 五行氣 중 水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방드르디가 떠나는 것은 로벵송의 태양적 변모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물도 물 나름이지, 너무 깊어서 시퍼렇다 못해 검은 빛이 나는 바다의 속은 두려움마저 준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변화가 무쌍하여 알듯하면서도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심리는 水에 해당할 것이다. 그 동안의 생활을 고려해볼 때, 아무 말도 없이 밤중에 사라지는 방드르디의 심중은 여간해서는 속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닮았다¹⁴⁷.



¹⁴⁷ <방드르디의 떠남>은 1차분류의 水에 해당하며, 떠나기로 결심한 방드르디의 심중은 2차분류의 水 즉, 金の 水氣에 해당한다.

화이트버드호가 도착했을 때, 방드르디는 배 자체에 대한 기쁨과 탈출의 열망으로 한껏 들뜬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기쁨과 열망은 火에 속한다. 五行剋生에서 金은 火의 剋을 받아 水를 生한다(火剋生金 金生水). 결국 방드르디-金이 떠나는 것은 기쁨으로 작용한 火氣의 영향에 의해서라고 분석할 수 있다.(표18 참조)

섬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로벵송은 방드르디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로벵송은 방드르디가 떠나자 지금까지 이룩해놓았던 자신의 변모가 모두 수포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절망에 빠진다. 로벵송은 내적으로 <水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剋生적으로 볼 때 <水의 시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土의 기운이다(土剋生水).(표18 참조) 土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¹⁴⁸.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土의 기운이 지나치면 고독하고 폐쇄적이 될 수도 있다¹⁴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水의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土氣는 방드르디가 떠난 것에 충격을 받은 로벵송의 고독함-土로 나타난다. 水는 인생에서 노년기에 해당한다. 유일한 동반자를 잃고, 화이트버드호가 싣고 온 28년 이라는 시간과 앞으로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의 무게를 짊어진 로벵송은 태양의 기사에서 힘없는 노인이 되어 죽음을 결심한다.

그러나 이제 늙고 힘없어진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힘겹게 획득한 그 은총의 상태를 다시 찾는단 말인가? 그 방법이란 그저 죽어감으

¹⁴⁸ 土의 성품은 信이다.

¹⁴⁹ cf. 낭월 박주현, *op. cit.*, p.175

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 이 섬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고독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이제 그에게 적합한 유일한 영원의 형태가 아닐까 ?

Mais, vieux et sans forces, comment recouvrerait-il cet état de grâce si longuement et durement conquis ? N'était-ce pas tout simplement en mourant ? La mort en cette île dont plus personne ne violerait sans doute la solitude avant des décennies n'était-elle pas la seule forme d'éternité qui lui convenait désormais? ¹⁵⁰

水는 “陰의 기운이 전체를 장악했을 때”¹⁵¹로 계절로 따지면 겨울에 해당한다. 봄-木에는 싹-木이 트고, 여름-火에는 번성-火하며, 가을-金에는 결실-金을 맺던 모든 것이 겨울-水가 되면 사라지는 것은 水의 응결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陽의 표면을 陰으로 수렴하는 金의 단계를 지나 水의 단계에 이르면 내부의 깊은 곳까지 陽氣가 응고 한다¹⁵². 하지만 그 응고의 단계가 단절과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水氣에 의해 완전히 수장된 陽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씨앗-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⁵³. 이 씨앗은 다시 새 봄을 맞이해서 싹을 틔우고, 이렇게 해서 순환은 계속된다.

6. 죄디-木

방드르디가 떠남으로 “태양의 도시에서 떨어진”¹⁵⁴ 로뱅송은 죽음을 결심하고, 자신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동굴을 다시 찾는다. 그 때 동굴 속에서 어린 소

¹⁵⁰ VLP, p.291

¹⁵¹ 낭월 박주현, *op. cit.*, p.164

¹⁵² cf. 한동석, *op. cit.*, p.72

¹⁵³ cf. 낭월 박주현, *op. cit.*, pp.204-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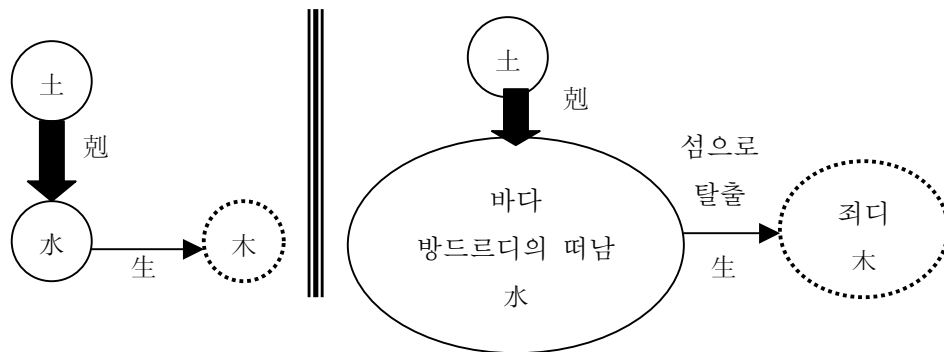
¹⁵⁴ VLP, p.13

년이 기어 나온다. 이 소년은 화이트버드호의 수부인 ‘자안Jaan’¹⁵⁵인데, 배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동안 로벵송의 따뜻한 눈길에 감동해서 항해를 하며 선원들의 학대를 받는 대신 섬에 남아 로벵송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는다.

저는 화이트버드호의 소년 수부예요. 불행하기만 했던 저는 배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제 제가 고급 선원 식당에서 식사 시중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저를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자 섬에 숨어 있다가 당신과 함께 남아 살기로 결심했어요.

Je suis le mousse du *Witebird*, répondit l'enfant. Je voulais m'enfuir de ce bateau où j'étais malheureux. Hier pendant que je servais dans le carré, vous m'avez regardé avec bonté. Alors, quand j'ai entendu que vous ne partiez pas, j'ai décidé de me cacher dans l'île et de rester avec vous.¹⁵⁶

죄디-木이 섬-土로 탈출하는 것은 土氣가 작용해서 水가 木을 生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표19 참조)



<표19>

¹⁵⁵ Ibid., p.280

¹⁵⁶ Ibid., p.292

로뱅송은 자안과 함께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바로 그 때 휘황 찬란한 아침 햇살이 머리 위에 내리 쬐면서 로뱅송은 청춘의 갑옷을 입고 영원에 사로잡힌 ‘태양신 l’astre-dieu’¹⁵⁷으로 거듭난다. 로뱅송은 자안의 이름을 죄디라고 지어준다.

이제부터 너는 죄디란다. 그건 하늘의 신인 주피터의 날이지. 또한 어린아이들의 일요일이기도 하단다. » 로뱅송이 그에게 말했다.

Désormais, lui dit Robinson, tu t’appelleras Jeudi. C’est le jour de Jupiter, dieu du Ciel. C’est aussi le dimanche des enfants.¹⁵⁸

자안의 이름은 어째서 죄디일까. 방드르디와 마찬가지로 죄디 역시 로뱅송이 자안을 만난 요일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지만, 방드르디와는 다르게 죄디의 이름에는 처음부터 ‘하늘의 신인 주피터의 날 le jour de Jupiter, dieu du Ciel’¹⁵⁹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투르니에의 작품들에서 아이는 주인공을 영원 불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¹⁶⁰ 죄디를 처음 만났을 때, 로뱅송은 죄디의 모습에서 아기천사를 연상한다.

¹⁵⁷ *Ibid.*, p.294

¹⁵⁸ *Ibid.*, p.294

아이는 木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한 때 목요일을 어린이 날로 지정했었는데, 이날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¹⁵⁹ *Ibid.*, p.294

¹⁶⁰ cf. 이용주, 「미셸 투르니에의 소설에 나타난 신화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1993, pp.37-39

『마왕 Le Roi des Aulnes』에서 에프라임은 티포주를 속죄하게 하고, 『질과 잔느 Gilles et Jeanne』에서 잔다르크의 구원의 형상은 어린이 천사로 나타나며, 『빨간 난장이 Le nain rouge』에서 난장이인 루시앵은 크리스마스날 아이들만이 관객인 공연을 하면서 신체적 결함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불행에서 벗어난다.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머리털은 무성한 붉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서 그의 가냘픈 어깨며, 아기 천사의 날개처럼 두드러진 견갑골이며, 주근깨들이 여러 줄로 돌아나고 피 묻은 자욱들이 줄무늬처럼 드러난 등이 더욱 허약해 보였다.

On ne pouvait voir son visage, mais ses cheveux formaient une masse rouge opulente qui faisait paraître plus chétives encore ses minces épaules, ses omoplates qui saillaient comme des ailes d'anglot, son dos le long duquel coulait une traînée de taches de rousseur et que striaient des marques sanglantes.¹⁶¹

반면 방드르디는 15살로, 아이라기 보다는 사춘기 소년이다. 사춘기는 순결한 아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 관능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시기로 일종의 쇠퇴기이다.¹⁶² 따라서 스페란차와의 성관계를 통해 로뱅송과 동격이 되는 방드르디는 뚜르니에가 선호하는 <아이>는 아니다. 그래서인지 방드르디가 로뱅송을 이끌 수 있던 태양적 변모의 단계는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었다. 뚜르니에는 『생각의 거울 *Le Miroir Des Idées*』(1994)에서 12살 먹은 아이의 예를 루소의 『에밀』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다. 그는 12살의 아이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완전한 존재라고 결론 짓는다¹⁶³. 죄디는 12살이고, 로뱅송의 구원자가 되어 그의 태양적 변신을 완성시킨다.

하지만 뚜르니에는 새로운 인물인 자안을 왜 하필 목요일에 만나게 했을까. 뚜르니에는 서문에서 로뱅송과 방드르디 그리고 죄디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를

¹⁶¹ VLP, p.280

¹⁶² cf. Michel TOURNIER, *Le Miroir Des Idées*, Mercure de France, 1944, p.34
« Etat menacé hélas par une sorte de décrépitude qui s'appelle la puberté. »

¹⁶³ cf. *Ibid.*, p.34

카드 본연의 이름이 아닌 별의 이름¹⁶⁴으로 부르고 있다. 불어에서 별이름과 관련이 있는 요일을 살펴보면 월요일은 달¹⁶⁵, 화요일은 화성¹⁶⁶, 수요일은 수성¹⁶⁷, 목요일은 목성¹⁶⁸, 금요일은 금성¹⁶⁹, 토요일은 토성¹⁷⁰에 해당한다. 타로점에서 로뱅송과 방드르디에게 할애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¹⁷¹을 제외하면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이 남는다. 달은 변화와 잉태, 출산의 이미지를, 수성은 전달을 담당하는 신인 헤르메스의 별로 지능과 합리성을, 목성은 제우스의 별로 행운과 확장, 진보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¹⁷². 선장의 타로 카드 예언대로 죽음을 눈 앞에 둔 로뱅송을 구원해주는 ‘하늘의 신 le dieu du ciel’¹⁷³의 역할은 달의 여신이나 전령사인 헤르메스 보다는 제우스인 목성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뚜르니에는 죄디의 등장과 관련한 타로 예언에서 죄디가 로뱅송에게 ‘태양의 세계의 열쇠 les clés de la Cité solaire’¹⁷⁴를 건네준다고 했다. 태양의 세계의 열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五行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 열쇠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¹⁶⁴ 타로 예언에서 로뱅송은 Mars, 방드르디는 Vénus, 죄디는 Jupiter에 해당한다.

¹⁶⁵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vol.11, p.59. “Lundi : jour de la Lune”

¹⁶⁶ *Ibid.*, (vol.11), p.381. «Mardi : jour de Mars»

¹⁶⁷ *Ibid.*, (vol.11), p.672. «Mercredi : jour de Mercure»

¹⁶⁸ *Ibid.*, (vol.10), p.704. «Jeudi : jour de Jupiter»

¹⁶⁹ *Ibid.*, (vol.16), p.978. «Vendredi : jour de Vénus»

¹⁷⁰ *Ibid.*, (vol.15), p.29. «Samedi : jour de Satur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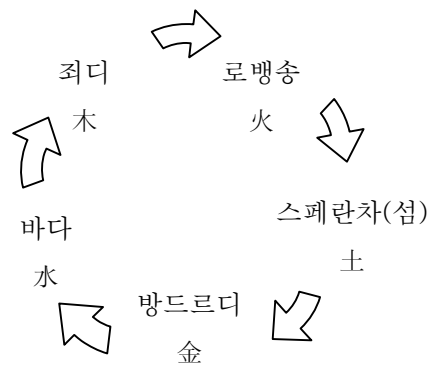
¹⁷¹ Mars와 Vénus 카드는 로뱅송과 방드르디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Saturne 카드는 9장에서 로뱅송과 방드르디의 수직적인 관계가 전복되는 것을 암시한다.

¹⁷² cf. 정재윤, 정성윤, *op. cit.*, p.158-161.

¹⁷³ VLP, p.14

¹⁷⁴ *Ibid.*,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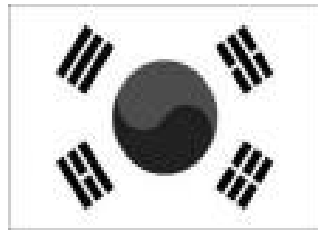
木은 “陰의 기운에서 陽의 기운으로”¹⁷⁵ 진행되는 것으로, 水에서 응축되었던 陰氣가 다시 태동하는 상황이다. 자연에 대입해보면, 겨울-水동안 봄-木을 기다리던 씨앗-水에서 싹-木이 나온 것에 해당한다(水生木). Ⅱ.4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뱅송이 도달하고자하는 태양의 세계는 太極이다. 죄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로뱅송에서 스페란차(火→土), 스페란차에서 방드르디(土→金), 방드르디에서 바다,방드르디의 떠남(金→水)로, ‘火→土→金→水’라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죄디-木이라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바다에서 죄디(水→木), 죄디에서 태양의 로뱅송(木→火)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火→土→金→水’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火→土→金→水→木→火’의 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죄디는 태양의 세계를 완성시켜주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즉, 태양 세계로의 열쇠 그 자체인 것이다. 타로의 예언에서 죄디는 ‘황금으로 된

¹⁷⁵ 낭월 박주현, *op. cit.*, p.164

아이 un enfant d'or'¹⁷⁶로 묘사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죄디-木은 황금과 열쇠라는 金의 성질을 지닌 木이라고 볼 수 있다. 인디언들은 “태양이 비너스와 주피터라는 두 전달자를 데리고 있다”¹⁷⁷고 여겼다. 로뱅송-火가 태양적 존재 火로 변모하는 것은 스페란차-土와 방드르디-金, 바다-水, 죄디-木 모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였지만, 그 중에서도 비너스의 화신인 방드르디-金과 주피터의 화신인 죄디-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흥미롭게도 방드르디는 木氣를 가진 金이며¹⁷⁸, 죄디는 金氣를 가진 木이다. 木은 陽은 陽인데 陰을 가지고 있는 陽이라고 해서 “陽中之陰”이라고 하고, 金은 陰은 陰인데 陽을 가지고 있는 陰이라서 “陰中之陽”이라고 한다¹⁷⁹. 이렇듯 木과 金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陰陽의 조화인 太極은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太極이 아니라 표20과 같은 모습이다.



<표20>

¹⁷⁶ *Ibid.*, p.14

‘황금으로 된 아이’를 五行적으로 보면, 황금은 金, 아이는 木에 해당한다.

¹⁷⁷ Robert Laffont, *Dictionnaire des Symboles*, Jupiter, 1988, p.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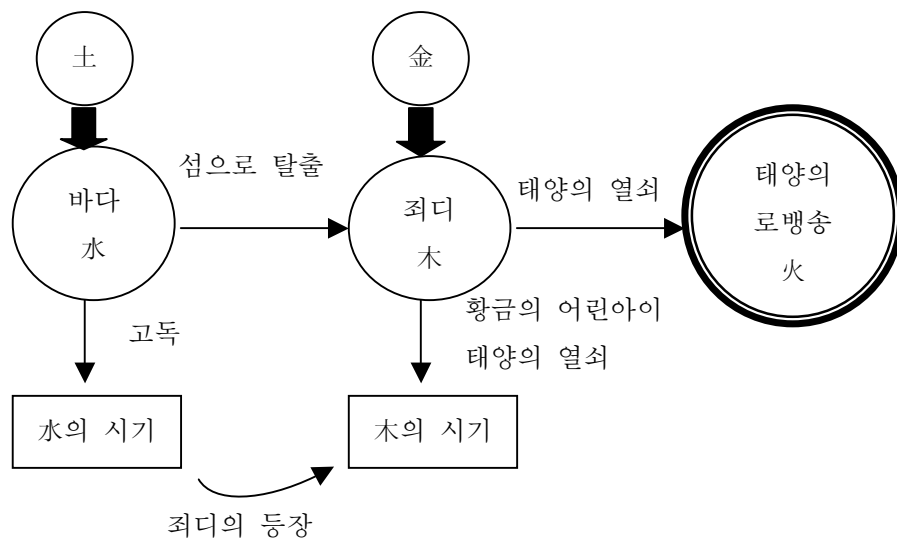
« (...)chez les indiens Ge Sherente du Brezil, pour lesquels le Soleil a deux messagers : Vénus et Jupiter. »

¹⁷⁸ 방드르디의 공기적 속성이 木에 속한다. (II.4 참조)

¹⁷⁹ cf. 낭월 박주현, *op. cit.*, p.146

흰색은 陽이고 검은색은 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太極은 ‘진정한 陽은 陰 속에 존재하는 陽이고, 진정한 陰은 陽 속에 존재하는 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⁸⁰ 陰陽의 원리란 서로 반대되면서 동시에 서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힘의 관계이다. 따라서 비너스와 주피터를 데리고 있는 태양이라는 말은 상반되는 요소가 함께 있는 太極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죄디-木의 존재를 剋生적으로 분석해보자.(표21 참조) 木은 金의 剋生을 받아 자신의 形과 火의 神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서 木과 火를 조성하는 것은 木에게 작용하는 金氣로 인한 것인데, 金氣의 영향을 받은 木은 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火인 로벵송을 生해주고, <木의 시기>를 형성하는 金氣를 지닌 木인 죄디는 태양의 세계로의 열쇠 역할을 한다.



<표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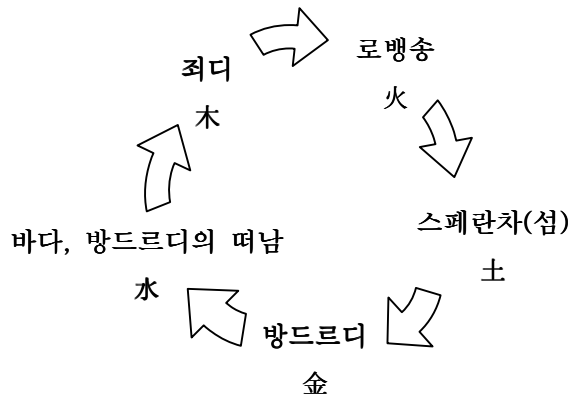
¹⁸⁰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5, p.39

죄디의 등장으로 로벵송은 과거의 자신을 벗어버리고 영원불멸의 태양의 세계에 도달한다. <죄디의 등장>은 과거의 로벵송과 결별하게 하는 일종의 통과제의적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로벵송은 이제 <水의 시기>에서 <木의 시기>로 들어선다. 木은 처음과 시작이라는 속성이 있다. 로벵송은 태양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 자전적 흐름과 공전적 흐름을 통해 일련의 통과제의를 마쳤다. 하지만 처음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처음인 태양의 도시에서 로벵송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된다.

결 론

지금까지 푸르니에의 『방드르디 또는 태평양의 苦聖所』를 陰陽五行의 시각에서 분석, 검토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방드르디』는 相生과 相剋을 합친 <剋生의 원리> 즉, <五行의 원리>로 작품 분석이 가능했다.(표10 참조)

디포의 『로빈슨』과 비교해 볼 때, 전혀 새로운 인물인 죄디는 이름이 <죄디>임으로 해서 태양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연결고리 즉, 그 자신이 태양 세계의 열쇠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을 도출해 냈었다. 죄디가 등장함으로써 ‘로벵송-火→스페란차-土→방드르디-金→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의 직선적인 구조는 ‘로벵송-火→스페란차-土→방드르디-金→바다, 방드르디의 떠남-水→죄디-木→로벵송-火’라는 순환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五行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방드르디의 떠남>은 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드르디의 떠남>-水는 <죄디>-木과 마찬가지로 로벵송의 태양적 변모를

완성시켜주는 五行氣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五行의 相生은 ‘木→火→土→金→水’로 이루어지나, 순서의 처음은 주주가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빈슨』의 프라이데이와 비교해볼 때, 방드르디는 『방드르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작품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로뱅송이다. 그런 이유로 『방드르디』에서는 五行相生이 ‘火→土→金→水→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방드르디』에서 相生의 흐름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5가지의 작중 요소로 이루어지는 <줄거리 흐름>이며, 다른 하나는 작중 요소와의 만남을 통해 로뱅송이 겪게 되는 <내적 변화의 흐름>이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듯이, 개인의 흐름은 전체의 흐름을 완성시키며,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개인의 흐름이 진행된다. <내적 변화의 흐름>은 로뱅송이 삶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각 시기로 입문하기 위해 로뱅송은 통과제의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은 모테회귀와 같은 상징적인 죽음이나 방드르디가 떠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상황 등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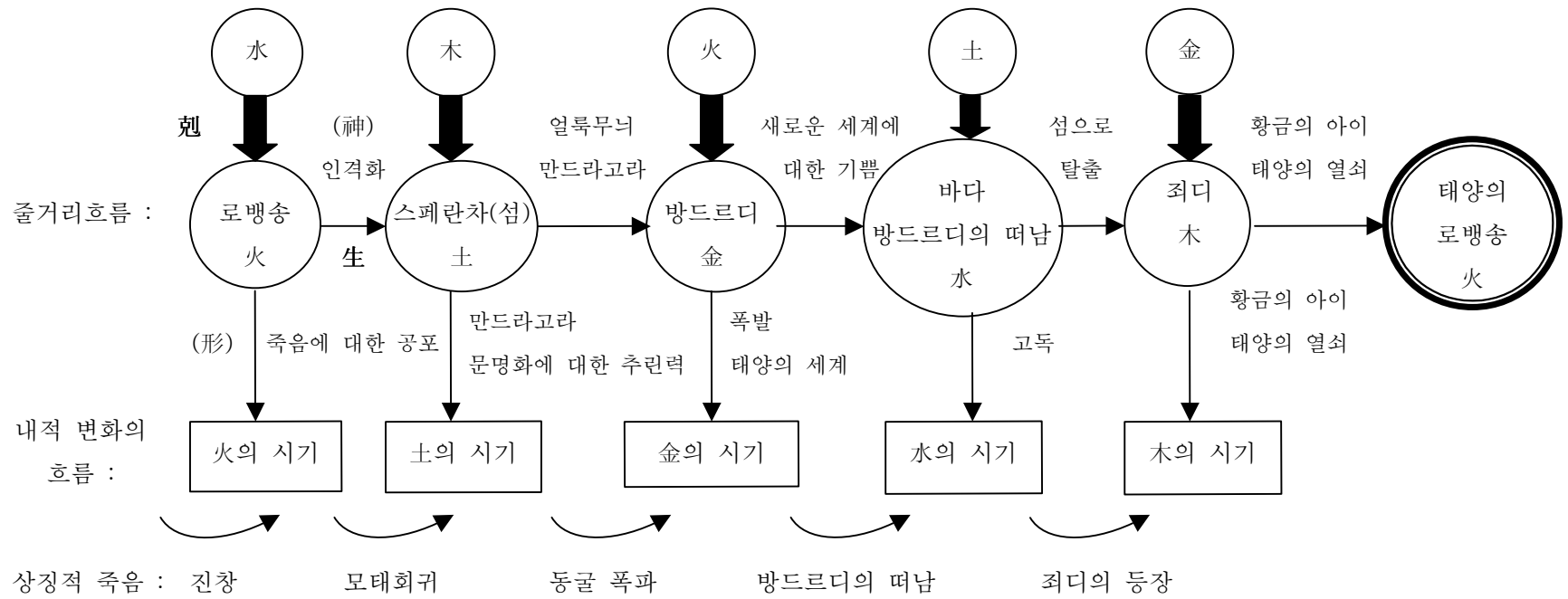
뚜르니에가 로뱅송을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한 <태양의 세계>, 신화의 세계는 <太極의 세계>라 결론지을 수 있다. 뚜르니에는 태양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간성의 극치에 달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모든 대립이 초월 되어 미분화 상태인 太極에 도달한다는 것은 <‘나’라는 경계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죄 사함과 천국의 비밀일 수도, 내가 곧 나비이고 나비가 곧 나인 자연 합일일 수도, 해탈이나 열반일 수도, 도道를 깨우치는 것일 수도, 불노불사不老不死일 수도, 금을 생성하는 것일 수도,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태양의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뚜르니에는 로벵송을 단번에 태양의 세계에 도달하게 하지 않았다. 로벵송은 때가 될 때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을 따라야 하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려면 번뇌를 극복해야 하며, 생하기 위해서는 靉이 있어야 한다. 太極은 木-火-土-金-水의 모든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한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은 자신의 신화를 완성해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신화가 완성된다는 것일까. 사람은 나이들어봐야 알고, 도인은 죽을 때 알아본다는 말이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자문해본다. 어쩌면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인 太極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매 순간 완성되어왔고, 완성되고 있으며, 완성되어갈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뚜르니에는 <타자>를 자기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보았다. 특정 자연물이 아니라 만물이 五行氣에 속하듯, 뚜르니에의 <타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해 살펴본 『방드르디』는 개인의 신화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21 : 『방드르디』와 廻生)



참 고 문 헌

1. Texte de Tournier

Tournier(Michel),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Gallimard, 1996.

Le vent Paraclet, Gallimard, 1975 (Folio n°1138, 1977)

Le Miroir des idées, Mercure de France, 1994

2. 국외 논문 및 참고서적

Bachelard(Gaston), *L'air et les songes*, Librairie José Corti, 1981

Bachelard(Gaston), *L'eau et les rêves*, Librairie José Corti, 1981

Bouloumié(Arlette), *Dossier*, Gallimard, 1996

Bouloumié(Arlette),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de Tournier*,
Gallimard, 1991

Chevalier(Jean), Gheerbrant(Alain), *Dictionnaire des symboles*, Seghers,
1973

Laffont(Robert), *Dictionnaire des symboles*, Jupiter, 1988

Vierne(Simone), *Rite, roman, initiation*,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3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3. 국내 참고서적

- 가스통 바슐라르, 정영란 옮김, 『공기와 꿈』, 민음사, 1995
-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8
- 공자, 홍승직 역해, 『논어』, 고려원, 1997
- 김배성, 『명리학정론』, 창해, 2003
- 김중의, 『음양오행-자연과 인생에 대한 지혜』, 세종, 2005
- 낭월 박주현, 『알기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2004
- 낭월 박주현, 『왕초보사주학 입문편』, 동학사, 2003
- 뚜르니에 미셸, 김화영 옮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민음사, 1995
- 뚜르니에 미셸, 김정란 옮김, 『생각의 거울』, 북라인, 2003
-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5
- 비에른느 시몬느,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엘리아데 미르치아, 이재실 옮김,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2003
- 정재윤·정성운, 『정통타로카드배우기』, 넥서스, 2004
- 조동운, 『Well-being을 위한 명리학』, 이누커뮤니케이션, 2005
- 이성복, 『네르발 시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한규성, 『역학원리해설』, 예문지, 1998
-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2005

4. 국내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박아르마, 「투르니에 작품의 사실적 글쓰기와 신화의 생성」, 서울대학교, 2000

이용주, 「미셸 투르니에 소설에 나타난 신화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1993

* 석사학위논문

김태희,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나타나는 아이」,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문진희, 「Tournier의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에 나타난 Tarot de Marseille에 의한 이미지 연구」, 조선대학교, 1991

신현경, 「Michel Tournier의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에서의 통과례(l'Initiation)와 그 물질적 상상력」, 성신여자대학교, 2000

이미영,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나타난 입문제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해경,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5

이재형, 「Tournier의 작품에 나타난 타자부재와 새로운 타자관의 제시」,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이현주,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에 나타난 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ABSTRACT

Michel TOURNIER's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based on the principle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RYU Jin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ichel TOURNIER's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1967) is a remade product(reécrire) of Daniel DEFOE's *Robinson Crusoe*(1719). He intends to revive the myth that he considers as the archetype of human thought in his work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based on the principle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the archetype of the oriental studies, while especially focusing on the meaning of following: <Solar city> where Robinson finally reaches in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departure of Vendredi> and

<appearance of Jeudi> which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works of DEFOE.

In part I , with the explanation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five characters of *Vendredi*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 Robinson corresponds to Fire, Speranza to Earth, Vendredi to Metal, Sea & departure of Vendredi to Water and Jeudi to Tree.

In part II, the relations between characters were reviewed on the principle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Two win-win structures could be found in *Vendredi* ; one is < the passage of plot> in order of the presence of five characters and the other is <the passage of Robinson's inner change>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Robinson and the five characters. *Vendredi*, in fact, was analyzed under the principle of conflict-win which connects conflict-conflict with win-win, which is the principle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Finally,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Yin-Yang & the Five Elem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 <Solar city> that TOURNIER aims to revive, corresponds to the Great Absolute, <departure of Vendredi> is necessary for solar transfiguration of Robinson and <Jeudi> takes a role of final golden link which completes the circle of solar city.